

여성주의 놀이터팀 <우주진복계획단> 프로젝트 잡지

내 눈에 사과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여성주의 놀이터 프로젝트 잡지

내 눈에 사과

2008. 2 호

특집 <화장실>
황단하여 살 붙이는 이야기
여성영화제 특집
바보노의 정세판단
밥유나의 정세판단
상어의 애완동물해방론
오늘의 트라우마
뭔지 모를 연애 치고 빠지기
공간 더듬기
드라마 들여보기
경험으로 박힌 음악
강의실 통같은 이야기
오늘도 머리에 쥐난다



“You are the apple of my eye”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CONTENTS

특집: 화장실



02 화장실 지도 그리기 03 마당에는 화장실, 어둠속엔 반딧불, 나의 손엔 너의 온기
08 신체검사와 화장실 10 담배통 열마 12 역압과 판타지의 공간 남자화장실
14 화장실에서의 관계 바라보기

횡단하며 살붙이는 이야기



17 자금-여기에서 1인 화장실을 꿈꿨습니다. 19 달려가는 페미시대
23 1인 화장실이 뭔가요? 먹는건가요? 28 화장실 용도의 다양화
30 3xFTM에서 시작된 이야기 - 나의 역사는 안녕하지 않아요 34 우리들의 선언 한마디

여성영화제 특집



35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공간, 공간들 38 MADE IN LA. 40 저항하는 삶, 그리고 코메디

42 바보노의 정세판단 48 밥유나의 정세판단 50 상어의 애완동물해방론 55 오늘의 트라우마
59 공간 더듬기 64 원지 모를 연애, 치고 빠지기 71 드라마 뜯어보기 76 경험으로 박힌 음악
79 강의실 동같은 이야기 84 오늘도 머리에 쥐난다 88 후기

여성주의 놀이터 프로젝트 잡지

내 눈에 사고



화장실

지도 그리기



사실 막막했습니다. 1인 화장실을 꿈꾸는 문화계 이야기가 함께 들어간다는 생각에 주제를 <화장실>로 잡기는 했는데, '내가 화장실에 대해 물어 놓을 이야기가 있단가?'라고 투덜대며 기획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성목학에 대해서, 군사주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때마다론 서적은 많이 있지만, 화장실에 대해 쓴 글을 본 적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투덜투덜에 격정까지 덧입히기도 했죠. 그저 서로가 어떤 이야기를 잡고 시작하더라도 우리는 여성주의에 기반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신뢰 하나로, 마음을 다잡고 갔습니다. 그리고보니 나, 이런 일 있었어. 맞아, 나는 자한 일이 있었어. 나는 화장실 하면 언제나 그게 생각나더라. 이야기가 순글순글 맺히고, 우리는 어느 때와 다른일이 따돌아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끝나고 나니, 화장실에 대해 할 수 있는 글이 한가득 나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여전히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이라는 말이 여성주의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듯이, 우리의 일상 공간인 화장실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지점에 성찰을 백투우고, 또 다시 고민을 좁아내는, 신선하고도 시야를 넓히는 자극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파생된 각자의 생각을 부어잡고, 또다시 각자의 여성주의를 토해내기로 했습니다. 유니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관계들을 조곤조곤 곱씹어 보며, 여성주의자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화장실조차 반역이게 하는 신자유주의 물질 속에서 만난 푸석석 화장실의 기억, 공동체와 평화와 생명에 대해, 노수가 그 온기와 소용한 비를 뿌려줬습니다. 나누기와 자정은 각자, 식구들 사이에 자리하던 화장실을 떠올렸습니다. 별 생각없이 글을 써 내려가다가, 화장실을 장악하고 몸을 긍정할 수 없도록 한 가부장과 가부장제 사회의 공모를 눈치챈 나누기는 버럭버럭 분노했고, 자정은 외로웠던 엄마의 공간으로써의 화장실을 되짚고 지금의 양마와 손집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게이 1인이라는 명의로 낳아온 기고글은 그가 생각한 색이었지만, 실상 색칠할 것 없었던(혹은 그 반대인) 남자화장실을 조명합니다. 라즈베리아씨의 화장실 연애 이야기는 이 사회에서 활동되지 않았기에 내몰았던 바람 굴의 성숙하고 예쁜 공간을 더듬었습니다. 공공 화장실의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현재 사회의 소외와 배제의 폭력을 가시화하고 문제제기하는 1인 화장실을 꿈꾸는 문화계 <너는 어디로 가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각각의 이야기와 접점을 만들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설사방에 시달리며 하루 3층 화장실을 들락이도록 한 것은, 어쩌면 내눈에서와 2호에 대한 압박이었는데도 모릅니다. 정신줄을 놓은 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며, 방새도록 종여실에서는 '강 고'라는 말과, 끼르르하는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또 어찌어찌 2호가 나옵니다. 욕심은 말이지고 부끄럽다는 생각만 들어, 정독해주시시는 말은 차마 안 나옵니다. 대충 집어다가 화장실 갈 때라도 읽어보심이 어떤가요. ● <우주전복계획단>

처음 무주 덕곡/두문마을로 환경현장활동을 갔던 때는 06년 6월 말이었는데, 우리는 도착한 후 처음 하루간은 내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선 도착하자마자 머릿속이 맑아지는 공기에 놀라고, 덕유산과 마을을 감싸고 있는 다채로운 푸른색과 손에 잡힐 듯 크고 풍부한 질감의 하얀 구름에 놀랐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청정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계속 놀라고 감탄하면서 숙소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숙소는 마을의 빈집이었는데, 동그란 마당이 있고 대청마루에 앉으면 산에 안겨있는 것 같은, 질푸른 산내음이 하늘로 공기로 마음으로 퍼져오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갈수록 무엇인가 미심쩍은, 각자의 가슴 속에 뭉개뭉개 피어오르는 그러나 차마 말할 없었던 한마디가 있었으니, "어, 근데 화장실은 어디?"

마당에는 화장실,
어둠 속엔 반딧불,
나의 손엔 너의 온기



좋은 화장실보다 나쁜 변소가 좋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삶이 좋고 나쁨은 변적이고 향기나는 화장실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집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하얀 타일로 덮여 있고 하얀 좌변기가 있고 세면대와 샤워기가 있는, 거실에서 문 하나로 이어진, 여차하면 팬발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없었다는 말이다. 어느 집에 놀러가도 당연히 하나 혹은 두 개가 있는 그런 화장실 말이다! 우리는 봐도 못 본 척, 생각을 했어도 하지 않은 척,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애써 외면하고 있던 마당의 냉골로 살짝 뒤덮인 작고 허약해보이는 문이 화장실일 것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아니 누가 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냥 열어보기로 했다. (사실 그냥 여는 것 말고 뭐가 더 있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그랬다. '그것'이 화장실이었다.

용변을 본다는 행위, 배설한다는 간단한 행위만을 두고 본다면 화장실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치만 되어 있어도 '화장실'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물질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상품이 되며, 어떤 상품을 어떻게 향유하는가가 삶의 질을 판별하는 이 시대는, 그럼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존엄하게도, 비천하게도 만드는 이 시대는 화장실조차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하며, 말끔하고 반짝이는 타일은 물기조차 없고, 은은한 음악과 깨끗한 향기가 흐르는 화장실은 용변을 본다는 행위를 아늑하고 문화적이며 세련되고 깔끔하게 만들어 준다. 그 안에서는 동을 누고 오줌을 싸고 코도 풀고 방귀도 푸는 행위도 우아해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총장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이 본관의 총장실에 딸린 화장실을 보고나서라면 과장일까, 혹은 총장실의 변기는 누워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소문은 그냥 할 일없는 사람들이 총장님의 화장실까지 신경 쓰며 음해할 거리를 찾느라 생긴 헛소리에 불과한 것일까.

무주에도 사람은 살고 있고, 그들에게 좀 더 좋은 화장실과 그로 상징되는 높은 삶의 질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정부는, 아니 혹은 좀 더 화장실을 팔고 싶었던 신자유주의 정권과 기업은 '기업



도시'를 만들어 잘살게 해주겠다며 주민들을 현혹하였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전북도민들에게 장밋빛 꿈을 실어주던 기업도시의 실체는 무엇일까. 기업도시는 말 그대로 기업을 권하는 지역 정책이다. 기업이 들어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라고,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 모 모두가 잘살게 될 것이니, 어서어서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신자유주의 시대, 기업은 예전만큼 쑥쑥 이윤을 낼 수가 없고,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윤을 내야한다. 그러니 이윤을 낼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세금감면이고 환경규제 완화이고 노동규제완화 등이다.

신자유주의 정권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주에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평화롭게 농사짓고 살던 주민들에게 민박, 기념품 판매, 음식점, 조그만 가게 등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고급호텔을 짓고 고급 상점을 지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기보조노동자로 고용을 확충할 것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산을 깎아서, 온갖 생명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이 산을 깎아서, 물줄기를 막고 돌을 깎고 등성이를 편평하게 해서, 다채로운 푸른색의 나무와 풀을 녹색 잔디의 사막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것이 지역발전이고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한다.

두문/덕곡은 가난한 마을이다.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정치적으로 따돌림 당하던, 여전히 푸세식 화장실이 남아 있는 전북의 한 가난한 산골마을이다. 누군가는 흥년으로, 누군가는 소값이 떨어져서 빚을 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비료값이며 종자값으로 골머리를 앓기도 할 것이다. 도시로 나간 자녀들은 비정규직으로 도시 빈민으로 부모들에게 땅을 팔기를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가난의 원인은 기업이 들어오지 않아서, 골프장이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육과

의료 등 사회적 장치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비정규직과 빈민을 양산하는 지금의 구조 때문이지 않은가!

골프장 반대, 기업도시 반대를 수백개의 깃발에 써서 달면서 우리는 생각했다. 칠팔손 노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상경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했다. 소금간한 밥과 김과 김치로 광화문 앞 평화공원 보도블럭 위에서 주민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우리는 생각했다.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환할 기간 동안, 밤이면 들쭉 짝을 지어 화장실에 가곤 했다. 누군가는 변비에 걸렸으며 울상을 지었고, 누군가는 3초가 지나면 코가 막혀서 괜찮다고도 했다. 누군가는 재빨리 동을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변하기도 했다. 조그만 알전구로는 어둠을 몰아내기 부족해, 밖에서 기다리는 이에게 살짝 문을 열어두고 있으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똥을 누면서 오줌을 누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킁킁대며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그만 나무 문짝 사이로 보이는 별들과 바람의 행보와 덕유산 동성이에 감탄하기도 하였다. 좋은 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좋은 화장실보다 나쁜 변소가 좋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살이 좋고 나쁜은 변적이고 향기나는 화장실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의 삶의 공간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화학물질들과 쓰레기들이 배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화장실을 갖기 위해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시의 삶이라는 것, 신자유주의 시대의 삶이라는 것을 두문/떡국마을 주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동네, 잘 살게 해준다는 그들에게 오히려 맞서서 투쟁하게 된 이유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아니고 땅값을 올려 받기 위해서도 아니다. 조금 덜 갖고, 자연과 생명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아는 이들은, 이제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려는 이들에 대항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다.

무주의 마지막 밤, 한바탕 마을 잔치를 끝내고 우리는 반딧불을 보러 땀발 산책을 나섰다. 깜깜한 밤, 간간히 차가 달리는 그 도로에서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눈이 아릴 정도의 어둠, 그 속에는 온갖 생명체들이 그들의 평화로운 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평화를 깨고 싶지 않은, 평화의 기운에 감화된 우리가 있었다. 그것은 온갖 것을 집어삼키는 적막의 어둠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할 아름다운 꿈으로 인도하는 어둠이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생동의 어둠임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 평화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이 바로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가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웃고 조용히 노래하고 나 즉히 걸었다. 그리고 만났다, 반딧불을.

바로 코앞에서 깜박이는 빛뚱을 본 적이 있는가.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누구도 들을 이 없는 그 길가에서, 왜 우리는 소리죽여 이야기해야만 했는지 느낄 수 있는가. 난생 처음 보는 그 날것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가. 하늘에서 내비치는 별과 달의 빛 속에서 단지 앞사람의 뒷모습의 아련한 형태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민 손의 온기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무주의 밤. 그 속에서 또렷했던 것은, 반딧불의 그 드문대는 깜박임, 그리고 평화로운 발걸음, 함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누군가, 우리 말고도 누군가, 밤하늘의 별만큼 많은, 상냥하고 평화로운 생명들이 있다는 사실, 고요한 마을 주민들의 잠을 지켜야 한다는, 앞으로 펼쳐질 수천 수백개의 밤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 그뿐이었다. ●

by 또다시 환황은 돌아오고, 보노

13 살 때가, 내 몸이 부끄러워지던 시기가 있었다. 배움시간에 배운 2차 성장에 대한 자부한 설명으로는 도저히 긍정할 수 없었던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어른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온몸을 덮쳐 오는 털이 실었고, 목소리는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아졌다. 신기하다기 보다는 별로 의식하기 싫었던 것 같다. 변화한다는 게 그때부터 두려웠던 걸지도 모른다. 내 몸은 변하고 있었지만, 그럴 이야기할 공간도, 이야기할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화장실 문을 꼭꼭 잠갔다.

그때 부터였다. 샤워기를 틀면 뽕뽕거리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란 사람이었는데 나는 처음 몇 번은 쉬가 급한가 보다 했다. 원래 잘못 참는 성격인데다가, 왜 참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문을 열었다. 수전으로 몸을 가린 채,

"아, 너는 사내새끼가 뭘 가려."

"아니, 그게 그게."

나는 정말이지 제발 어디 한번 보자는 말만은 나오지 않기를, 나오더라도 내가 듣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디 보자 얼마나 컸나....."



신체검사와 화장실

아무리 문을 꼭꼭 잠가도, 아무리 샤워를 빨리 해치워도,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고, 내 몸을 확인했다. 위 아래로 훑어봤다. 수치스러웠다. 그때 부모 자식 사이에 뭐가 부끄럽나 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자꾸 나의 변화를 아버지가 검사한다는 생각에 아려야 할 생각이 들었다. 화장실에서 나는 내 몸을 볼 시간도, 만지볼 시간도 없었다.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나가는 것, 그것이 몸을 씻어내는 것 이외에 샤워의 최대 목표였다. 나는 그 때 내 몸이 어렸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아버지가 평가내린 몇 마디로 추측할 뿐이다.

그의 시선으로부터 그 때의 내 몸은 다시 구성되어야 했다. 남자에게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어쩌냐고 했다. 너는 왜 탄 때는 다 털이 나는데 수영은 안 나냐고 했다. 너는 무슨 남자가 살이 그렇게 희어질줄냐고 했다. 남들은 다 어른이 되어 가는데 내 몸만 성숙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는 다른 내 몸이 미성숙하고 어리고,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았다.

그건 신체검사였다. 나는 매일 저녁 화장실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나도 모르게 생긴 상처로 또 뛰어 놀았냐고 혼나기도 했고, 불룩 튀어 나온 배는 아동 비만이라고 비난받았다. 어떤 날은 등이 좀 굽었다고 했고, 어떤 날은 허벅지가 두껍다고 했다. 신체검사에 익숙해지는 만큼 나는 내 몸이 싫어졌다. 더운 날에도 긴 옷을 입는 횟수가 늘어났다.

백번 양보해서 부모가 자식의 성장이 궁금해서 들어다 볼 수 있다고 쳐봤다. 그래도 억울했다. 왜 내 몸을 매일 검사 받아야 했는지, 왜 내 몸은 항상 평가 받고 고쳐져야 하는 것이었는지, 왜 나는 아버지와 같은 몸이 되도록 요구받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들과 같이 목욕하는 것이 이 세상 가부장적 소박한 꿈이라고 쳐봤다. 그럼 같이 목욕을 하던가, 뽕뽕스럽게 들어와서 샤워하는 예 앞에서 민망하게 이리저리러쿤 말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최소한 나에게 내 몸을 스스로 바라볼 시간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직도 내 몸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게 모두 아버지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버겠지만, 들린 말은 아닐 거다.

똑같은, 조금 극대화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질병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다. 나는 신체검사장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 들러 내 몸을 살폈다. 남들이 보기에 많이 수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배에 힘을 주고 등을 쭉 펴고 어기적어기적 들어갔다. 시키는 대로 옷을 입어야 했고, 벗어야 했다. 등급을 받았다. 3급. 이미 난 수년전부터 내 몸의 등급이 3급 정도라는 건 알고 있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제기랄. ●

by 위기 아리서, 나누기

어려서, 아주 어려서, 호랑이가 담배 먹고 여자들은 담배 안 먹는 줄 알았던, 그래서 호랑이는 남성형만 있는 줄 알았던 어렸을 적에 말이다. 우리 엄마는 오래도록 화장실에서 동을 누고 나오면 항상 담배냄새가 은은하게 나곤 했다. 그래서 나는 "우왕 신기하당 엄마 똥에서는 담배 냄새가 나나봐"라고 생각했다. 아주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다. 아, 엄마 똥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담배를 피우는구나. 생각해 보면 엄마 빠순이였던 내가 엄마의 모든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며 스토킹을 할 때에 80년대 파마머리를 한 옛날 엄마가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발견하기도 했다. '우와 엄마 젊을 때에는 담배 피웠구나!' 그러나 한 번도의 심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엄마'가 담배를 피우리라는 것을.

담배통 냄새가 나는 엄마는 조금은 처연하고 조금은 지쳐보였던 것 같다. 그 때는 동을 누고 나와서 힘이 드나보구나 생각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나올 때도 있었다. 갑자기 수도를 트는 소리가 쾅하고 나면서 오래오래 나오지 않다가 눈물이 그렇그렇하니 나와서는 나를 꼭 껴안을 때도 있었다. 생각해 보면 엄마는 화장실에서 많은 일들을,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다. "엄마, 뭐해. 똥 누? 나 들어갈래."라고 화장실 문 밖에서 징징대고 있던 나에게 눈물이 맺힌 채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서 "술이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라고 말하며 외락 울었을 때부터, 약간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엄마에게 화장실은 그냥 나처럼 동 누고 세수하는 공간이 아니라, 집 안에서 유일하게 엄마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엄마는 그 안에서 울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화도 삭이고, 슬픔도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고 보면 엄마는 가끔 전화를 받을

때에 무선전화기를 꼭 쥐고 어색한 표정으로 화장실에 들어가곤 했다. 엄마는 누군가와 싸우고 나면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를 크게 틀곤 했다. 물레 지저분, 세수를 하던 엄마는 거울을 보며 무언가 중얼거리기도, 예쁜 척하며 거울을 보다가 피식 웃기도 했다. 궁금하게도, 문이 잠겨있는 화장실 안에서 엄마의 까르륵하는 목소리가 뜬금없이 들려오기도 했다.

지금 나와 엄마는 내 방에서 나와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운다. 내 방에는 재떨이가 있다. 방에 냄새가 났다는 엄마의 반대에 무릅쓰고 처음에는 빈 담배곽을, 그 다음에는 커피컵을, 결국은 엄마랑 같이 산 예쁘장한 그릇을 재떨이로 놓았다. 내가 방 안을 너구라굴로 만들고 있다면, 엄마는 창문이나 좀 열라고 잔소리잔소리 늘어놓지만, 그러는 엄마도 한 손에 예쁜 img를 한 개비 들고 있다. 엄마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러했듯이 내 방에 와서 담배를 피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흘려 내놓는다. 나지막한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결혼해서 느낀 것들, 옛날 친구들을 요즘 만나며 생각하는 것들, 최근에 재미있는 것들, 살면서 토로하고 싶었던 것들, 기타등등 기타등등. 엄마의 삶이, 일상의 면면에 대한 조금은 자조 섞인 귀여운 한탄이, 담배 연기와 함께 내 방에 퍼진다. 평생 못 들어본 재미나는 엄마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는다.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엄마와 나도 한 데 풀어놓는다. 같이 울기도 많이 울고 한숨도 많이 쉬지만, 화장실이 아닌 내 방이라는 것에 작게 안도한다. 아무래도, 이야기할 사람이라곤 거울 안의 자신밖에 없는 그곳에서 울분을 토하고 화를 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외로우니까.

폴제미에 운동권인 딸내미 방은 행사하느라, 회의하느라 비어있을 때가 많다. 내 방 컴퓨터 앞에 앉아, 주소창에 으레 있는 고양이 사진이 올라오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엄마 무릎에 고양이가 한 마리 올라간다. 딱끈따끈한 고양이는 잠에 들고, 엄마도 술술 졸리면 시계를 확인하고 딸내미에게 문자를 보낸다.

[언제 오는규?]

[나 오늘도 밤샘회의임 널봐 엄마 잘자안녕]

[알싸하게 자지 말고]

딸내미는 조금은 엄마한테 미안하고, 조금은 엄마가 보고싶어진다. 내일은 일찍 퇴근해서 엄마랑 놀아야지 생각하고, 저녁으로 뭐 먹자고 할까 생각하며 웃는다. 빈 내 방에 엄마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울까 걱정도 되지만, 그 방을 엄마 방으로 쓰는 것이 마음에 든다. 엄마는 엄마한테 이런 딸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까? 그랬으면 좋겠다. ●

by 자몽

담 엄마

배 통

가짜

귀여운 엄마와 재떨이.

2006-07-21 오전 1:39:11

흔들려 나갔다 오니 내 방 컴퓨터가 켜져있다.
내가 켜 놓고 나갔나 확인하러 본을 끄고 나갔는데 허대 가락을 화장하다가 악스물로피를 피우니 컴퓨터가 켜져있는
고양이 사이트 주소가 주소창 안 휘하 자리해있다.
아니나 다름과 재떨이에 담배가 피우는 곳에 끌려도 있다.

저녁에는 방에 담배냄새가 났다며 재떨이를 놓지 말라고 잔소리잔소리하더니 이제는 엄마가 담배를 피우려 내 방
에 온다.
나는 무뎠던 딸이라 집에 돌아오면 아무말 없이 방에 들어가서 발문을 꼭꼭 닫고 웅크린 채 지내는데 요즘에
는 엄마가 배서시 웃으며 방에 들어와서는 나에게 담배 물어보곤 한 다 일관되게 하고 참담 않아 있어 담배
무대 이것저것 물어봐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물어 물어놓기도 한다.
박봉이 오한만에 술잔을 돌돌돌돌하며 이야기하고 같이 앉아서 때도 듣는 스소한 담배를 만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쯤에, 집에서 문 열어놓고 오줌을 누다가 갑자기 동네 아주머니가 오셔서, 창피했던 기억이 있다. 그 때 이후로 문 닫고 오줌 똥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휴게실에 소변기가 하나하나씩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전부 이어져 있었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거기서 안 똥다. 아마 다들 나처럼 그렇게 공개되어있는 공간은 창피했었나 보다. 남자끼리만 안 창피한 건 줄 알았는데.

공중화장실에서 소변기에 오줌을 누다가 청소아줌마가 들어오시면 당황했었다. 그런데 '나는 게이지'라고 정체화한 이후로부터 '어쩔 때 창피해 하는 게 맞는 거지?'란 혼란이 생겼다.

나는 이성간에 벋은 몸을 보여주는 것은 창피한 것이라고 배워왔다.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 어느 부위가 창피한 것인지도 다들 물어, (어떤 문화에선 여남이 서로의 성기가 보이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어느 상황인가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동성 간이라도 혼자 똥가리고 있다면 대부분 창피해할 것이다.)

억압과 판타지의 공간, 남자화장실



남자 둘이서 나란히 소변을 보다가 서로 할금할금 쳐다본다. 대놓고 쳐다보기도 한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히 짐작은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소변을 보고 있으면 친구가 뒤에 와서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하면서 장난을 친다. 당황해하는 친구와 그걸 보고 즐기는 친구.

운동이라도 하면 남자들이 땀까지 뿜어내고 옷을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씻는다. 장담게 대화하며 몸을 씻는 친구들.

몸을 누다가 구석에 조그맣게 '동성애 010-000-0000' 적혀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긴 최적의 홍보장소이긴 하다.

나는 이성간에 벋은 몸을 보는 것이 성적인 것이라고 배워왔다.

배워온 것과는 다르게 나에게 남자화장실은 어느 정도 성적인 공간이었다. 서로의 성기를 보고 장난치며 놀다. 얼마나 유쾌하고 색설했는가?
가끔씩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자위한다는 이야기를 들기도 했는데, 나로서는 참 상상이 안 가는 판타지의 세계였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분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기에, 생각해보니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비정상'이라고 느끼고 나의 감정들을 혐오했던 데에는 남자들만의 화장실이 한 몫 했다. 특히 소변기라는 구조물이 가지는 그 이상아릇한 의미. '봐도 돼...' 나로서는 도저히 해석 불가능했지만, 이 사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남성 간에는 성적일 수 없고, 고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봐도 창피할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젠 남자화장실이 게이들에게 얼마나 성적인 공간으로 이용되는지 잘 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망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동성애혐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커다란 무의식적 '근거'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

by 안영?, 난 게이인

화장실에서 의 관계 바라보기

- ① 학관3층 층어학생화실을 나간다.
- ② 복도를 지나 여학생화장실에 들어간다.
- ③ 화장실문을 연다. 일요일 저녁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다.
- ④ 쓰레기통은 생리대, 휴지 등으로 넘쳐난다.
- ⑤ 웅아/쉬를 한다.
- ⑥ 물을 내린다. 잘도 내려간다.
- ⑦ 졸래졸래 층어실로 돌아온다.

이 일련의 과정을 속에서 관계가 보이시는가?



3 화장실문을 연다. 일요일 저녁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다.

▶ 일요일 저녁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다. 연휴가 연달아 있을 때에도 휴지는 없다. 화장실도 더럽다. 짜증이 나기도 한다. 깨끗하지 않은 공공화장실에 짜증이 나는 건 공공화장실은 깨끗하게 '멈춰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짜증은 공공화장실에서 내가 미화청소노동자와 맺는 관계를 간파했을 때 발생한다.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새벽 6시부터 일 하고, 때때로 수세미 등 청소도구도 개인 돈으로 구입해야 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미화청소노동자들은 노동한다. 공공화장실을 사용하는 학생인 '나'는 화장실을 사용하는(더럽히는)주체로서 화장실을 사용하는(청소하는)주체인 미화청소노동자들과 관계를 맺는다. 화장실의 깨끗함은 노동자의 노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결과이다. 그리고 관계가 보였을 때, 화장실이 정지해 있는 공간이 아님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다.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해 봤을 때 화장실은 언제나 깨끗한 공간일 수 없을 역시 보인다.

4 쓰레기통은 생리대, 휴지 등으로 넘쳐난다.

▶ 이 넘쳐나는 생리대와 휴지는 어디로 갈까? 바로 소각장으로 가거나 땅에 묻힌다. 휴지가 쌓이는 양이야 말 할 것도 없고, 생리대는 그 양이 얼마나 될까? 내가 생리를 시작하면 한 5일 하는데, 하루에 아무리 안 써도 4개는 쓸 거니까 한 달에 20개면 일 년에 240개인데 생리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끝이 없다. 그 온갖 다이옥신 등의 화학약품은 불로 타도 없어지지 않고, 땅에 묻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먹는 채소에 영향을 미칠 거고, 내가 뜯어먹는 풀에도 들어있을 지 모른다. '나'가 사용한 생리대, 휴지는 땅과 공기를 더럽히고 땅과 공기는 그 아이들을 정화하다가 결국 찌꺼기를 남기고 찌꺼기인 화학약품은 '나'를 괴롭힌다. 생리대와 휴지 역시 그냥 멈춰서 쌓여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을 사용한 만큼, 그것을 없애는 데에는 땅의 힘과 소각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가 땅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게 되면 일회용 생리대 쓰기가 찝찝해지더라. 대안생리대를 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흡수력도 좋고 빠는 게 그리 힘들지 않다고, 게다가 생리통도 줄어든다고 하기에 최대한 빨리 사용해보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하고 버리고 이를 힘들게 처리하는 관계가 아닌, 땅/공기와 새로운 관계의 장이 열릴지도 모른다.

5 웅아/쉬를 한다.

▶ 층어실에서는 똥 얘기가 종종 나온다. 불규칙한 식사와 밤샘, 컵라면으로 뒤범벅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똥은 몸을 괴롭힌다. 일상적인 폭풍설사와 그로 인한 고통을 희화화하는 대화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생각해 보면, 웃기고 말 일이 아니다. 내 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희화화만 하고 끝낼 일인가 이게. 나의 몸과 웅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자. 웅아의 상태는 내 몸 상태를 대변한다. 내 몸이 똥꼬를 고문하면서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먹고, 컵라면 좀 그만 먹으라고, 웅아 역시 내 몸과 관계 맺고 있는 아이였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농활 가서 서울 학생들이 눈 똥은 거름으로 쓰기 힘들다고 한다. 안, 썩, 어, 서,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우리 서울 학생들 똥은 썩지도 않는다. 이를 보듬을 땅도 힘들어 할 만큼, 몸과 똥과 땅과의 관계-몸 챙겨야겠다.



6 물을 내린다. 잘도 내려간다.

▶ 네이버 지식인을 구경하다보면 이런 글들도 나온다. '화장지를 물에 흘려보내면 물이 오염되나요? 캔스레 물 생각이 난다. 정말 궁금하다. 화장지를 물에 흘려보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환경에 더 좋을까? 화장지를 흘려보내서 그 화학물질 때문에 물이 오염되면 더 환경이 나빠지지 않을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는 물은 넉넉할까? 물 전쟁이 난다 어떤다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게 더 물을 절약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지 참 궁금하다. 심지어 학교에서 컵라면 먹고 나면 컵라면 찌꺼기를 변기로 내리기도 하는데... 마시고, 씻고, 그냥 씻고, 더러운 것 씻고, 걸레도 빨고, 옷도 빠는 물인데 공공화장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싸아 내려가는 변기 물에는 관심도 없었다. 예전에는 물 아낀다고 샤워 한 세 번 한 뒤에 물을 내렸다면데 물은 이런 것들을 정화할 만큼 충분한 걸까. 그저 나의 공간, 내 소유물이 아닌 공공화장실의 물이라는 이유로 물과 내가 맺고 있는 직간접적인 관계들을 너무 간과한 건 아닌지.



공공화장실에는 위의 관계 외에도 또 다른 관계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관계는커녕, 애정조차 없고 관심도 없는 공간이었던 공공화장실이지만 나와 관계하고 있는 것들은 다 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그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지 않던(보려하지 않던) 관계를 보는 순간, 새로운 관계의 장-미화노동자분들과 연대한다거나, 대안생리대를 사용한다거나, 올 열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공공화장실에서의 관계 바라보기, 좋지 아니한가! ●

by 실사는 싫어요, 뜨끈한 밥을 주세요, 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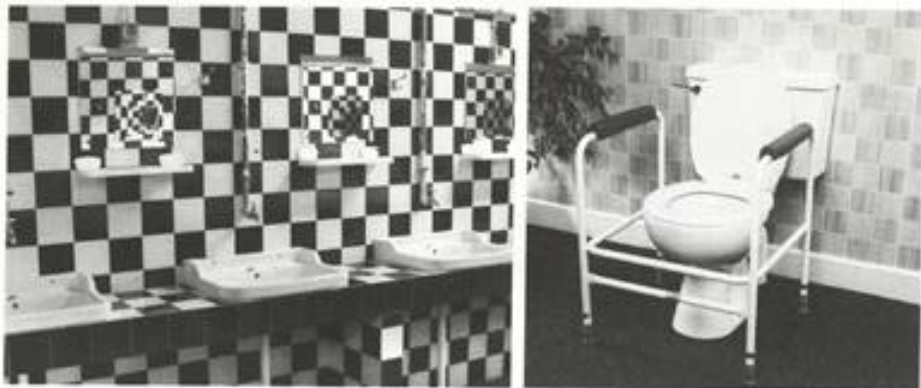
지금-여기에서 1인 화장실을 꿈꿉니다



현 재의 공공화장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에 침입하여 발 밑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밀고, 그것으로 모자라 아예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다가 'OO역 여자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포르노 사이트에 버젓이 유통시키는 성폭력 가해가, 도처의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칸막이조차 없이 일렬로 배치되어있는 소변기는, 서로의 성기를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을 '성별'로 구분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을 이성으로 한정하고, 동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이들을 은근히 배제합니다. 자신의 성기가 가르쳐주는 성별로 자라나고 살아가지만¹⁾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과 다른 사람들은, 공공화장실에 들어갈 때 심히 곤욕을 겪거나, 혹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걸보기²⁾ 성별이분법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보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소풍을 갈 때에 음료수를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에 가야 될까 봐'라는 가슴 아린 증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파란 바지와 빨간 치마, 혹은 젠틀맨과 레이다, 들로 딱 잘린 구분 가운데에 성별이 문제가 되지 않는 화장실의 공간사용이 있으니, 장애인 화장실이 그러합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당연히 통용되는 성별을 기본으로 하는 색슈얼리티가, 장애인에게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 사

1) 우리는 성기의 차이에 의해 성별을 부여받고, 그에 입각하여 다른 경험을 하여 자라납니다. 남자에게는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여자에게는 집안일을 돕는 것이 권장됩니다. 간성(intersexual)의 경우, 이러한 구분을 내릴 수 있도록 두 개의 성기 중 하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성별에 편입하는 것이 강제됩니다.

2) 이 '걸보기'는 남성기를 가졌느냐, 여성기를 가졌느냐의 구분이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성적인 외모'를 가졌느냐, '여성적인 외모'를 가졌느냐의 구분이기도 합니다.



회가 내포한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비장애중심적인 섹슈얼리티의 위계화를 자발적으로 폭로하고 있다고 보아도 모자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주목하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애시당초 성별에 의한 구분과 그것 '밖'을 갈라놓고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충 비장애인 여럿이, 한꺼번에, 개방된 공간으로 쓰게 한 공공화장실의 사용으로, 갖가지 사회적 차별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은지, 심지어 강화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묻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질문을 뒤집어씌웁니다. 그래, "너는 어디로 가니?" 라고.



1인 화장실을 꿈꾸는 문화제 <너는 어디로 가니?>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 1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비상벨 설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2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를 가시화하고, 고민합니다. 화장실의 분리에서 보이는 비가시성의 문제가 비단 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님을 생각합니다.
- 3 성별에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 4 화장실이라는 필수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공간 구성을 한다는 사실에서 짚어낼 수 있는 '보편'의 폭력과 '수치적 평등'의 허구를 꼬집어냅니다.

현재의 공공화장실이 불편한 이유?

(여기서 공공화장실이란 학교, 공원, 영화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장실을 뜻하지요. 집에 있는 개인 화장실 말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마크를 보고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 생물학적인 성별과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에게는 이런 구분이 매우 폭력적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 생물학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간성(intersexual)의 존재는 고려하지 않는 구분방식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기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양성구유자는 '비정상'으로 분류되어, 갓난아기 때부터 수술을 강요받기도 하지요.

▶ 사회적 기준으로(겉보기에) 여성에 '적합'하지 않으면 여자화장실에 갈 경우, 변태로 오인받거나, 이상하다는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분의 틀에 맞추어질 것이 강요됩니다.

▶ 이렇듯, 모든 사람을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구분하는 것을 성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

달려가는 페미니스트



라팔알라팔라팔라



달려가는



페미니스트

횡단하며 살 붙이는 이야기

들을 차별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지요. 하지만 누구도 완벽하게 '남성성'에 부합하거나 '여성성'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성별 이분법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을 만들고, 우리를 혼란하는 기제가 될 뿐입니다.

많은 공공화장실이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유독 장애인 화장실은 여남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합니다.

▶ 이는 장애인을 무성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공간에서는 여남구분이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유독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장애인이라는 범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은 차별입니다.

공공화장실 내부에는 개개인이 안전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좌변기가 놓여 있는 칸막이는 밑과 위가 열려져 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가 카메라로 찍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포르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등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는 공개되어있는 장소에 놓여 있고, 이는 남성끼리는 성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대(혹은 보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이성애중심주의가 녹아 있습니다. 동성끼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음을 전제하는 것은 '누가(어떤 성별이) 성애적 대상이냐'를 이미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성애중심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비이성에 정체성들을 배제하여 비가시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 세안하고, 배설하고, 코를 푸는 등의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포함하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라고 문화적으로 구성되었다면,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별로서 획일적으로 분리될 것이 아니라, 내가 수치스러운 행위를 보여도 상관없을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를 보여도 상관없을 정도의 성적으로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화장실은, 다른 이와 함께 쓸 것이 강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문이 여닫이일 경우 열수 없습니다.(더 이상 문이 아닌 것이지요.) 장애

인들이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달이 자동문이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표시나 음성안내가 있어야 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평 및 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나누어 놓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정한 정상인/장애인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 모든 시설이 장애인이 가능하다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로 분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 덧붙여, 이는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낮빛이 낮은 세면대와 스위치는 어린이에게도 편하고, 지팡이를 짚는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수평 및 수직 손잡이는 매우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넓고 휠체어이용이 가능한 공간은 유모차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치적 평등은 평등이 아닙니다.

▶ 관광지나 휴게실에 가보면 알 수 있지만 여자화장실은 언제나 길게 줄 서 있지요. 이는 여성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공간의 크기만 같게 해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공간을 좁게 차지하는 소변기가 있는 것까지 고려하여 평등을 추구한다면, 여자 화장실은 더 커져야 하겠죠.



달려가는 페미니스트



연세대에



1인화장실을



주세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여남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동생도 쓰고 엄마도 쓰는 공간입니다. 문을 닫고 잠그면 완전히 밀폐된, 혼자만의 공간이 됩니다. 장애인도 이용하기 편하도록 기구를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1인 화장실은 집 화장실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집 욕실에서 욕조가 빠진 것이지요.)

공공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장애'는 그 공간에서 '장애'가 아닐 것입니다. 공공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데에 '여성'과 '남성'의 구분과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여성'과 '남성', 이 두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더 이상 '비정상' 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끼리는 괜찮아', '여자끼리엔 뭐 어때'라는 사고에 기반하여 여럿이 같이 쓰는 공간이 아니라면, 내가 '되고 안 되고' 사람을 성별로 구분하는 이성애중심성이 현재의 공공화장실에서 스스로의 권위를 재생산하는 작용을 단절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임을 보장한다면, 같이 있을 그 자체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여남의 성별 권력에 의한 폭력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 안전하게, 이용에 있어 어떤 사회적 구분에 맞춰질 필요 없는, 성별 구분이 없는, 그리고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밀폐된 공간으로서의 1인 화장실을 꿈꿉니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며 배려라기엔 너무나 요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효율성' 논리가 누구를 위한 효율인지부터, '다수'의 이름을 가진 기득권이 사회적으로 지지되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풀어나가려 합니다. '당장 학내 화장실을 부수고 1인 화장실로 대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화장실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의 재구성을 논의함으로써, 가장 일상적이고도 급진적인 드러내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제는, 평온해 보이는 지금의 사회를, 연세 학내를, 우리들의 공간을 굳이 열내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괴상한 꿈, 그 어떤 허구적인 '현실'보다 필요한 현실을 꿈꾸며, 문화제의 시작을 엿니다. ●



by 몸을 누비는 자몽
featuring 오리

1인 화장실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1인 화장실은 생소한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제 기획단들도 1인 화장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1인 화장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문화제 준비를 시작했으니까요. 실제로 사용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1인 화장실을 꿈꾸는 문화제 기획단들이 1인 화장실이 가능한 사회를 구상하며 의문이 생기고 고민이 들었던 점들을 QnA 형식으로 재구성했어요. 이 자료집을 읽는 여러분도 1인 화장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더욱 관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후~♡

Q 화장실의 성별을 없애고 1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목욕탕이나 수영장 탈의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별 구분 없이 1인 목욕탕, 1인 수영장 탈의실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목욕탕이나 탈의실 등 많은 공간들은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탕에 몸을 담그고 씻는 문화도 모든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서유럽은 대중적인 목욕탕이 없습니다. 여행을 가면 대부분 1인 샤워실 형태로 된 곳에서 몸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은 샤워란 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벌어졌을 몸을 이성간에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 또한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도 문화마다 다릅니다. 단순히 모든 공간을 1인용으로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간이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화장실을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공간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화장실은 가고 안 가고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배설이 매우 사적인 행위로 여겨지는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밖에 없는 공공화장실이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공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Q 1인 화장실을 구축하려면 같은 공간에 화장실이 더 적게 들어갈텐데, 공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A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효율성' 인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화장실의 구조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에게는 '효율적인 화장실' 이었던 반면에, 다양한 성적체성 혹은 신체적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효율성' 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자 화장실의 길게 늘어선 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으로서 '그들' 의 관점만으로 구성된 공간 효율성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화장실' 에서 장애인들은 입구를 들어가는 것, 제대로 몸을 지탱해서 번기에 몸을 엮는 것, 물을 내리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환자의 경우 남녀가 구분된 공공화장실의 이용을 강요받으면서, 그 엄격한 성별구분의 폭력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의 시선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질문에서의 '공간의 효율성' 은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만을 위한 '효율성' 이며, 그것은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폭력과 배제를 은폐시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Q 솔직히 내(여성)가 쓰는 화장실을 남자가 쓴다고 생각하면 막연한 거부감이 들어요.

A '남성' 과 '한' 화장실을 쓴다는 느낌보다는 '나'만의 화장실을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1인 화장실이라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여남공동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세상을 여자와 남자로 이분법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집에서나 친구 집에 놀러가서 이성과 같은 화장실을 쓰는 것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면 공공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공화장실이란 특성상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을 쓰게 되는 데서 오는 거부감은 어쩔 수 없겠지만요.

Q 생리대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남자들이랑 같이 쓰는 데도 그냥 번기 옆 휴지통에 버리나요?

A 생리를 숨겨야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점은 봉투에 생리대를 넣어 주 듯)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똥 닦고 버리듯이 그냥 휴지통에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누군지 모를 여성이 말을 냄새가 걱정된다면, 뭐 어때요? 똥 냄새도 나는데, 전반적으

로 냄새나는 것을 막기 위해 뚜껑 있는 휴지통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Q 남자 화장실에는 '내가 누구랑 잤는데, 어땠다는 똥, 어땠다는 똥,....' 이러한 낙서가 써져있는데, 그런 거 보기 싫어요.

A 1인 화장실은 보통 화장실처럼 만든다면 벽이 타일 재질이라 낙서를 잘 못 하지 않을까요? 공공화장실의 칸막이가 낙서하기 참 좋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서 쓰인 저질 글들에는 멋지게 리플을 달아주면 좋겠네요. 어차피 여남구분된다고 해도 저질 낙서를 안 볼 수 있을 뿐이지 그런 생각하고 다닐 인간들이 많을 테니까요.

Q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으면 됐지, 왜 굳이 모든 화장실이 장애인도 이용 가능해야 하는 건가요?

A 현 화장실을 살펴보면 '장애인/비장애인 화장실' 의 구분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말 고려해서 분류한 것인지도 의문이 갑니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 키가 작은 어린이, 뼈가 약한 사람, 생식기에 병이 걸린 사람 등등 장애인으로 인식되진 않아도 '비장애인화장실' 을 사용하기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장애인/비장애로 구분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의적인 구분은 '장애인' 라고 분류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요구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한 예로 공간부족을 이유로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현 공공화장실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성' 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의적인 구별짓기를 통해 '공공성' 에서 특정한 집단을 소외시키고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비장애인 화장실이라는 구분을 없애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Q 1인 화장실이라면 한 명만 들어가는 밀폐된 공간인데, 그러면 더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않을까요?

A 꼭 밀폐된 공간이라고 해서 성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에 대한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성폭력이란 '남성의 소유물인 여성의 몸이 침해당한 상황' 을 뜻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을 오히려 '적절하지 못한 시간' 에 '적절하지 못한 공간' 에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 성폭력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고 돌리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행해지

는 책임 전가는 피해자인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정조가 침범되었다는 분노로써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자신의 결정권이 침범되었다는 스스로의 경험으로써 성폭력을 이야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개인의 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성주의적 관점, 즉 피해자중심적인 관점에서 성폭력을 바라볼 때, 공간과 무관하게 성폭력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남 구분이 명확한 비장애인 화장실에서 이러한 위험은 크게 작용합니다. 바닥과 천장이 열려있는 화장실 칸에서는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들은 바바리맨처럼 특수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지도 않으며, 때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2년 전 서울대에서는 한 남학생에 의해 여자화장실이 몰래 촬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남성은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들이댔다고 합니다. 촬영 도중에 몰래 카메라를 들기자, 그는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나와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화장실 몰래 카메라라는 식당 주인에 의해, 사관학교에 의해, 경찰 고위 간부에 의해 설치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성폭력이라고 명명될 때 사회에서는 이를 '성폭력치고는 너무 사소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은 화장실 몰래카메라와 같은 사건들을 공론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이처럼 공간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은,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여남 성별 권력 관계의 타파,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방일 것입니다.

1인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서 기획단 내부에서는 논의를 진행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모든 1인 화장실에 장착하여 성폭력에 대해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개인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입구에 가까이 설치된 비상벨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 이를 문 밖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식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1인 화장실이 현실화되었을 때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조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연세대학교 내 여남 성별에 대한 권력 관계가 타파될 수 있도록, 또한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학내 여성주의자들이 운동할 거예요 ^_^

6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여자 화장실에 침범하는 사례가 많나요?

A 화장실에 몰래 보드, 영상물 촬영본 30여 점, 녹취식 기록 : 2008.09.02 (금) 오후 4:28
[서울=뉴스1] 서울 성동경찰서는 2일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오씨는 22일 오후 4시 경 서울 성동구 군포동의 한 공동화장실 후지통에 작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4명의 모습을...

조민영
조민영 기자 보기

윤영남은 유산성도 여성 몰래촬영본 '윤영' 공개... 서울=뉴스1 2008.04.13 (화) 오후 7:11
발고 한다 앞서 전남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지하실 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지난달 12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지하철 6호선 교차로에 여자화장실이 몰래 숨어 들어가 있 안에서 용변을 보던...

조민영
조민영 기자 보기

Q 장애인화장실은 여남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비장애인 화장실의 성별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화장실의 성별구분을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A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쟁점은 다양합니다. 장애인화장실을 이야기하면서는 장애인을 무성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시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화장실은 여남을 그렇게 철저히 분리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냥 장애인화장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장애인은 성별에 상관없이 장애인 일 뿐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장애인에게는 성 정체성이나 성적 욕구가 없다고 믿는 사회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화장실'이 따로 존재한다는 자체가 '일반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다수의 일반인과 분리된 존재'라는 사실을 개인에게 상기 시키기에 이미 충분히 폭력적입니다. 여기에 장애인은 무성적 존재라는 시각이 더해져 있는 '여남구분이 없는, 그냥 장애인화장실'의 존재는 더더욱 폭력적인 것이지요.

한편 화장실이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성별이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있다는 성별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그 스스로가 자신을 이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화장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선택하면서 상처 입는 과정'이 필요 없는 화장실입니다. ●

by 친절하고 상냥한 기획단☆

화장실 용도의 다양화

점 차 화장실의 용도도 다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용변을 보는 것 이외에 화장실에서 하는 다른 일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1995년 6월부터 그간 남자화장실에만 놓여 있었던 콘돔 자동판매기가 여자 화장실에도 설치되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콘돔의 시대적 역할이 피임에서 에이즈 예방으로 바뀌었다.”며 “여성에게도 적절한 자구책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여자 화장실 내 콘돔자판기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자 화장실에 설치되는 자판기는 문구부터 달랐다. 종전의 “고추 하나 때문에.....”는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된 대신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여성”이 채택됐다. 남성용도 “에이즈 예방, 피임”이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화장실 낙서를 소풍의 마당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1995년 12월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는 사회대 건물 내에 있는 10개의 화장실 벽마다 ‘난장판’이라고 이름 붙인 A4 용지 크기의 낙서판을 설치했다. 마구잡이 낙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매주 월요일마다 학생회가 선정한 화내외의 주요 쟁점사항을 놓고 ‘난장판’을 통해 토론을 벌이는 것이었다. 학생회가 이처럼 화장실에까지 찾아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려는 것은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회에 대한 관심 저하 때문이었다. 학생회 측은 “지난 주 치러진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율이 사상 최저인 48%에 머무르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학우들의 관심이 더 떨어지면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장 선거는 투표를 미달사태가 벌어져 투표를 3차례나 반복했으며, 서울대 학보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83%에 달하는 학생들이 “총학 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감성 상품’도 쏟아져 나왔다. 예컨대, 1997년 10월 욕실용품 전문업체인 브리앙산업은 에티켓 벨, 향수 분무기, 라디오, 시계까지 묶은 5가지 기능의 여성전용 화장실 제품을 내놓았다. 에티켓 벨은 그동안 여성들이 ‘볼일’을 보면서 부담스런 소리를 지우려고 몇 번 씹이나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습관에 착안, 스위치만 누르면 20초간 물소리가 ‘짜아~’ 하고 흘러나오게 했다. 또 볼일 보는 동안



무료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라디오를 설치, AM/FM을 들도록 했다. 특히 향수 분무기까지 있어 좋지 못한 냄새가 옷에 배는 것을 방지해 주게끔 했다.

에티켓 벨의 원조는 일본이었다. 1985년 일본인들은 철수를 위해 ‘음희’라는 여성용 정수형 변기를 고안해 냈다. 이는 여성들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자신의 신체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세 번 정도 물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내게 하는 변기였다.

일부 여성들에게 화장실은 흡연 공간이기도 했다. 1998년 한 수입 담배 업체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여성 흡연자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여성 흡연자의 48%가 주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한국 성인 여성(18세 이상)중 4%가 흡연 여성이라는 공식 통계와는 달리 실제 여성 흡연자의 비율은 15~20%정도로 추정되었다.

1997년엔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비밀카메라가 등장하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신촌 그레이스백화점은 여자 화장실 천장에 3~4mm 크기의 구멍을 뚫어 특수렌즈를 설치, 지하 1층 방재실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를 통해 화장실 내 전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측은 “4월 초 누군가가 화장실 변기에 30여 차례 고의로 비닐 쓰레기를 버려 비밀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변명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 발상이었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몰래카메라로 여자화장실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급기야 적발된 사람이 최초로 구속되는 사건이 1998년 3월에 벌어졌다. 형법상 건조물/방실침입 및 업무 방해 등 3가지 혐의였다. ●

[한국 화장실의 역사 : ‘볼은 계급의 형제한 반영’인가?] 중 발행 / 강준만 씀 / 인물과 사성사

3×FTM에서 시작된 이야기

- 나의 역사는 안녕하지 않아요

..... 세 명의 FTM이 들려주는 'T'(toward 혹은 transition) 혹은 'to'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풍부한 화두를 던져주는 <3xFTM>은 이런 고민을 실천하는 첫 걸음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작품이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였다'고 말하는 고종우는 8년째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다. 완전히 '남성다워' 지지 않는다면 남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는 자기 안에 남아 있는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지우고 싶어 한다. 오랫동안 소망했던 가슴 절제수술을 마친 성전환자인권운동 활동가 한무지는 자신의 몸이 점차 비성전환자 남성과 가까워지면서 다시 FTM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한 인간을 남자 혹은 여자로 만드는 것인지, 그의 고민은 점점 깊어간다. 여자의 몸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보다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성별을 변경했다는 김영진. 그러나 주민등록 뒷번호 'Y'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여중/여고 출신이라는 기록, 병역문제 등은 그에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남겨 놓았다.

서울 여성 영화제 <3xFTM> 소개글



이 전 영화에서 시작해서 나에게로 흘러가는 이야기다. 영화에서 그 내용을 보고 이것저것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하지만, 결국 영화가 끝난 후에 나에게 남은 것은 옛날 내 모습뿐이다.



아주 어렸을 때, 꿈을 꾸는 적이 있다. 후레쉬맨, 파워레인저 등등의 5명이 색깔 별로 옷을 입고 나와서 악당을 물리치는 시리즈물이 쏟아져 나왔을 무렵, 내가 레드가 되서 열심히 악당을 물리친 것이다! 꿈에서 깨서, TV를 보고 있던 엄마랑 오빠에게 꿈에 대해서 '수줍게' 이야기를 했다. 난 내가 남자 역할인 레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다. 자랑스러운데,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수줍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조금 자라나서는 남자로 보이지는 않았을지라도, 남자처럼 행동하는 아이가 되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오빠'라고 장난스레 불리는 아이였고, 나를 '남자 선배'처럼 여기는 여자 후배들도 간혹 있었다. 그리고 난 그것이 싫지 않았다. 영화의 한 주인공이 동네 아주머니가 "남자애들 알았네!"라고 말했을 때, 느꼈다면 그 뭐라 표현할지 알 수 없는 설레는 느낌의 경험을 나도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 때 사귀던 여자애와 동네 어귀를 어슬렁거리다가, 그 아이의 친구들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나중에 그 아이한테서 문자가 왔다. "내 친구들이 남자 친구를 알았네!" 그래, 그거 기분 좋았었다. 그런 상황들이 좋아서 점차 남자처럼 입고 다니거나, 행동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말이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트랜스젠더 남성이거나, 아니면 이런 과거들을 한 때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간직한 여성이라고 정의내리기 위해 시작한 것은 아니다.

처음으로 산 MP3에 녹음 기능이 있어서 신기해했었다. 그냥 혼자 흥얼거려던 것, 기억나는 말들을 녹음하면서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었다. 내 목소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말이다. 난 내 몸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었다. 그건 내 몸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회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시키는 기준이 되는 나의 성이나 가슴을 혐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난 좀 더 건장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말랐거나, 어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남성성'에 대한 욕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줄 몸을 점점 더 강박적으로 욕망하고 있었다. 아직도 고장 난 그때의 MP3에 녹음되어있던 그때의 절망은 난 왜 내 모습을 긍정하지 못했을까, 라는 성찰로서 끝맺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를 구성

जू디스 버틀러는 젠더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젠더의 '가면무도회'라는 말을 사용했다. 나에게 내 욕망이 그러하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하고 싶은 욕구가 나에게 존재하고, 그것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나는 나의 모습을 바꾼다.

하는 일부로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영화를 보면서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었다. 맞아. 남자가 되고 싶었다. 그냥 남자가 되면,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사귄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한테 짝퍽대는 녀석을 온갖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지 않고 그냥 한 대 치고 깨끗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심지어 공부도 잘 할 것 같았다! 그렇게 내가 즐기면, 좋아하면 '남자 아이 같은' 모습은 어느 순간 내가 나를 판단하고, 맞추려고 노력하는 기준이 되었고, 그것은 내가 자기혐오로 빠지는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경험에서 성찰을 이끌어낼 수가 없었다. '남성성'에 대한 욕망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압박, 이 두가지 사이의 줄다리기에 대해서, 그 당시의 나와 전혀 다른 곳에 서있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말든 상처를 육신거리게만 할 것 같아서, 그 시절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싶었다.

'남성성'에 대한 욕망이 더욱 강렬해서, '여성성'에 대한 욕망은 삭제되었던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끝나고, 대학에 와서 여성주의를 접했다. 억압되어졌던 '여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서, 난 좀 자유로워졌다. 교복 치마를 제외하고는 금기와도 같았던, 치마를 입기도 했고, 남성스러워져야 한다는 압박에서도 벗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스러워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의 '남성성'에 대한 욕망을 물어버리는 것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다. '여성'임을 긍정하는 것이 나에게 간단히 편안해질 수가 없어진 것이다. 어설프게 듣고 말하고 있었던 '여성성'과 '남성성' 속에서 나는 예전에 내가 '남성성'을 욕망함에 따라 '여성성'을 포기했던 것처럼, '여성성'을 긍정하면서 '남성성'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남성성'을 드러냈을 때나, '여성성'을 드러냈을 때나,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보였을 때는 언제나 행복했었다. 내가 원하는 옷을 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걷고, 말할 때는 좋았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남성'이 되어야 하거나, '여성'이 되어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나는 다시한번 갇혀버리게 되었다.

जू디스 버틀러는 젠더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젠더의 '가면무도회'라는 말을 사용했다. 나에게 내 욕망이 그러하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하고 싶은 욕구가 나에게 존재하고, 그것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나는 나의 모습을 바꾼다. 굳이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나 크로스드레서라는 이름을 붙이길 모르겠지만, 어느 것도 나의 욕망과 일치하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분법적 성별의 이름이 나에게 불편하듯이 말이다. 나는 내가 여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괴롭지도, 남성으로 변화해야겠다는 욕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 때문에 괴로워했던 3xFTM의 세 주인공들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를 꼬집어낼 수 있었다. '전형적'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이 사회의 성별 이분법 혹은 젠더 이분법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렵고, 그렇다고 '전형적'인 남성의 모습 혹은 여성의 모습, 혹은 성별로서 구분되고 싶지 않은 모습을 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 두려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고, 내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고립된 상황에서, 이 영화는 진심으로 한줄기 빛이었다.

그 세 주인공은 영화를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공감하고 있었던 레즈비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 나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기를 권해줄 수도 있고, 이 영화가 어느 레즈비언이 입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좋아할 수도 있고, 식상한 이야기여서 호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 이 이야기가 나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역사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꼬집어내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쓰다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대체 뭐가 그리 어려웠을까. 그리고 다시 궁금하다. 당신은 어떠한가. 안녕하지 못했던 나의 식상한 역사처럼, 당신의 역사 또한 안녕하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인사 좀 하게, 살짝 꺼내 봐주시기를. ●

by 난 옐로우도 좋아 후레쉬레드

"안녕하세요, 성해방을 꿈꾸는 레이입니다! 1인 화장실 좀 쟁인 것 같아요♥"

"재인입니다O_O/ 세계평화 원추♥"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돈 없이 차별 없이 아무런 편견 시선 없애!!!!"

"안녕하세요! 관념론자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무비무비.."

"평화가 무엇이야!"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군대를 없애요."

"홍! 메롱"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재훈이에요. 성별 이분법의 갑갑함을

1인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풀어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정의술입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PEACE~"

여러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킵시다."

"썩입니다! 내 몸에 막말하지 말고 닥쳐요, XX 세상아!"

"안녕하세요, 저는 루입니다. 해방 사회가 와야 합니다. 갑자기."

"안녕하세요, 나누기입니다. 김치찌개가 1000원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노입니다. 차별친화적 연세 메롱이에요."

"안녕하세요, 상어입니다. 나도 좀 편히 살자."

"안녕하세요, 토란입니다. 반성 좀 해야합니다."

"오리입니다. 누구에게나 간지럼피우며 장난치고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우주는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돼지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넘게 한 남자를 짝사랑한 게이총각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전 로그예요~ 로그! 로그! 일인화장실 번기에 앉아봤으면 하구 바라고 있어요♡"



우리들의 선언 한마디

SEE THE WORLD THROUGH WOMEN'S EYES/

여성영화제 특집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공간, 공간들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이라는 영화는 감옥에 수감된 미국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은 스스로 여성 혹은 남성으로 정체화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들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생물학적 성별'을 따져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공간을 결정한다. 그 열기에 이미 호르몬 주사를 받고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MTF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범죄자 수감 시설에 수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안에서 그녀들에게는 수많은 성폭력들이 발생했다.¹⁾ 영화에 나온 한 수감자는 여성 수감 시설로 옮기기 위해서 지속적인 재판을 벌였었다. 하지만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남성 범죄자 수감 시설이 택했던 방법은 그녀를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었다. 길게는 1년까지 갇혀있었다면 그 독방에서 그녀는 단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그곳에서 밥을 먹고, 불일을 보고, 아주 작게 나있는 창문으로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이다.

1 이 영화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성폭력 사건들이었다. 성폭력 사건들은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세하게 묘사되었고, 영화의 빈을 넘겨 차지하던 이 내용들은 내가 풀어가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그러나 난 이 영화의 내용 중에서 공간에 대한 것에만 집중해서 쓸 것이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단 하나의 문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그녀에게는 성폭력의 위협이 느껴지는 남성 범죄자 수감 시설이나 성폭력의 위협에서 격리된 독방이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공간이다. 그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공간에 대한 그들의 사유 방식은 단순했다.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그녀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과 시선들이 오가는 그 공간에서 그녀가 '견디어' 내거나, 아니면 모든 곳을 차단된 공간으로 고립시키거나, 폭력적인 사회에 순응하거나,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그들의 이분법적 구분은 성별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공간들은 그들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성애중심주의의 폭력이다. 그리고 동시에, 공간을 이분법적 성별로밖에 나뉘는 적 없는 이성애중심주의의 혼란을 드러낸다. 이성애중심주의의 완고한 성 밖에서 권리를 외치며 있는 그녀들의 모습을 그들은 독방 감금이라는 비날로 감싸기 급급해하고 있다.

영화를 보면서, 그녀들이 처한 상황의 잔인함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다. 영화의 주인공을 여성 수감 시설로 옮기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처한 위협에서 그 사람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인가? 그곳에서는 그녀에 대한,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렇다면, 영화의 그녀는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했지만, 자신을 여성으로도 남성으로도 정체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

예전에 친구들에게 재미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공간에 대한 구분을 한다. 하지만 레즈비언과 게이와 이성애자 여성과 이성애자 남성이 있다면 어떻게 방을 구분하면 성폭력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분법적 성별로 구분되는 공간이 사실은 이성간의 성폭력에 대한 위협으로 구분되는 것이라는 사회의 암묵적 전제를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한 농담이었지만, 결국 한 5초간 질문을 던진 나를 고민에 빠뜨렸다. 처음에 생각한 답은 방 4개였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한 답은 나는 모르겠다!! 우선, 이성애중심적으로 구성된 이 사회에서 권력적 남성과 순응하는 여성 사이의 전형적 연애 각본이 성폭력적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통념들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누군가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없고를 우리는 성정체성

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라서 판단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그 개인과 개인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져버린다. 지금껏 사회는 '성폭력에서 안전한' 일상적 공간을 사유한다면서도,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것 이상의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 내놓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현재의 일상적 공간에 대한 성별 구분이 계속해서 폭력을 재생산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려고조차 하지 않을 테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안전할까? 에 대한 의문을 이분법적 성별 구분이 일상화되어있는 공간 중 그 폭력이 가시화되지 않았던 공공화장실에서 던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이성애중심적 사회라는 전제 하에서 공공화장실의 성별 구분은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방편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 구분으로만 나뉘어졌을 때,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적인 위협은 이성 간에만 발생할 수 있고, 동성 간의 목욕이나 샤워는 아무렇지 않게 진행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동성 간의 성폭력은 성폭력이 아닌 것으로 명명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여성과 남성의 구분만으로도 충분하며, 동성 간 공간을 사용할 때는 성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맞는 말이고, 어떤 경우에는 틀린 말이다. 남성 수용 시설에 수감된 MTF 트랜스젠더 여성은 그녀가 남성이라는 법원의 판단 아래에서 '동성'의 공간으로 수감되었고, 성폭력 위협에 노출되었다. 여자인 사용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나는 공공 여자 화장실에 있으면, 남성이 침입해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여성'의 공간을 노리는 몰래 카메라에 대한 의심 때문에 전혀 편안하지 못하다. 머리가 짧았던 고등학교 선배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남자로 오인받아 쫓겨난 이후로, 화장실 갈 때마다 친구와 자신의 정체성을 '증언해줄' 친구와 같이 가곤 했다. 공간에 대한 경험은 이렇게 개인마다 다양하다. 이 경험들은 단순히 성정체성, 성별 정체성의 문제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이분법적 성별의 구분이 얼마나 폭력적인지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공통점만을 가질 뿐이다. 이제 공간은 구분될 수 없는, 함께 공유되어야 할 공간, 그러면서도 이성애 중심적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는 온갖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기 위해 다시 사유되어야 한다. ●

by 나도 안전한 공간이 갖고 싶어 상어

MADE IN L.A. (MADE IN L.A.)



기동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5월 20일이면 1000일을 맞이한다. 이랜드 뉴코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300일을 훌쩍 넘겼다. 힘이 빠졌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나도 힘이 빠진다. 요즘 종종 하는 말이 있다. 세상은 폭발해야 한다. 그리고는 다 같이 죽고, 아무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수밖에 없다. 세상이 변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 절대, 아무도 살아서는 안 된다. 농담이면서 진담이었다. 내가 말하는 혁명은 언제 올 것이며, 과연 내 생애 볼 수 있을까. 내 생애 속에서 볼 수 있다하더라도 나는 그것들을 견딜 수 있을까. 3.8 여성의 날 때 모였던 그리 많지 않은 연대대오와 조합원들을 보면서, 아직 우리 투쟁 끝나지 않았다며 외치셨던 조합원님 발언 들으면서 내 마음도 먹먹했다. 나의 '뭇난 비판'은 이렇게 파도 타듯 울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리곤 작은 축제가 시작되었다. 여성영화제라는 작은 축제에서 아무래도 눈이 갔던 건 여성노동영화였고, [메이드 인 엘에이]를 예매했다.

엘에이에 있는 봉제공장 forever 21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역시나' 비정규직이다. 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들은 하루에 3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노동한다. 이들은 그 착취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불법 이주민이라는 생각에 똘똘 바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이랄까 불행이랄까 임금이 채불되면서, 그리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엘에이 불법이주민 동네의 활동가 언니가 수집하게 되면서 일은 벌어진다.

이들의 투쟁은 자그마치 3년 걸린다. 영화 속에서 시간은 쉴 틈 없이, 너무나 쉽게 흘러간다. 그 시간과 함께 넘실대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금이친다. 마리아는 중간에 투쟁을 그만뒀다. 남편이 나가지 말래서 그만뒀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리 실망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마리아는 그리 열정적인 것 같지 않았고, 끊임없이 아이들과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으므로 낙담하지 않았다. 작은 체구로 인해 무시 받지 않기 위해 화장을 진하게 하는 루메가 조직가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루메라도 남는다면'이라는 마음이 더 강



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돌아왔을 때 그 의외의 모습에 기뻐고, 자랑스러웠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속박하는 남편과의 이혼, 그 이후 되찾은 삶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일자리를 위한 투쟁을 빼 놓지 않았다. 마리아의 선택과 실천은 막막하기만 하던 나에게 다른 길도 있음을 보여줬다. 불법 이주 노동자에서 반자본주의 세계화 활동가로, 가정 안에 속박되어 있던 여성노동자이자 어머니에서 가족이라는 허울을 박차고 나온 여성으로, 또 다른 노동할 곳을 찾아가는 노동자로 그녀들의 삶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무엇보다 주체적이다. 그녀들은 거대한 세계화라는 흐름에 끌려가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며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낸다.

대체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옆에 앉은 이와 조금의 친분만 있었더라면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토닥거렸을 것이다. 그 사람도 울었고, 그 옆 사람도 울었으며, 그 뒤도 그 뒤의 열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웃는 그녀들의 투쟁과 삶은 바다 건너 미국만의 일이 아니었다. 불법 이주 여성 노동자만의 일도 아니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의 열열한, 3년의 투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녀들의 모습은 장기화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승리가 가능성을 보여준 기분 좋은 충격이었다. 물론, 투쟁의 결과로 노조조차 만들어 지지 않았고, 또 다른 노동현장을 찾아가는 그녀들의 모습과 공장파업을 할 수 없었던 그녀들의 모습이 남아있는 한 '성공적인 투쟁'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넘실대는 자본의 파도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불법 이주 여성 노동자'가 만들어 낸 것, 그리고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겐 벽한 경험이었다. 나만의 '뭇난 비판'이 끝났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어쨌든 내가 비판하진 말건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남한 그녀들의 삶도 역동하고 있다. 나라고 뭐 다를 거 있나. 이왕 흔들리고 휩쓸리는 거 중심이라도 잡고 사려면 함께 싸우는 수밖에. ●

*p.51 3년 투쟁하는 언니들의 영화를 연세대분회조합원님들, 흙예버 조합원님들, 기동 조합원님들 다다 보여드리고 싶다. 어쨌든 내가 힘 받은 영화지만, 조합원님들도 왠지 힘 받을 것 같다. 다 같이 봐요!

by 뭇나도 미워하지 말기 유나

저항하는 삶 그리고 코메디 (이티비티티 위원회)

내가 싸우는 건 내가 싸움닭이기 때문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언제나 회유와 충고에 시달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딪히고 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미 내가 싸우는 것은 삶의 방식이 되었다. 무심한듯 쉬크하게 나를 억압하는 것들을 폭로하고 그것들에 저항하는 것, 이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학점과 토플점수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저항하는 삶, 돌이킬 수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었다.

싸우면서 산다는 건 힘들다. 끊임없이 나를 약자의 자리에 포지셔닝하는 일에서부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들을 의심하고 이야기하고, 반대하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고 외치는 것까지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고 싶은 내 마음까지 너무 힘들다.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 나 혼자 남는다. 함께 하지만 또 따로 가는 내 친구들, 동지들과의 소통과 관계위에 오롯한 내 몫으로의 투쟁은 언제나 밤마다 찾아오게 마련인거다.

동력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원천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와 책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 같이 싸워가고 있는 동지들을 보면서 힘을 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속 어디엔가 코메디가 있다.



실컷 웃었다. 눈물이 땀과 날 만큼 웃어 재웠다. 그 어떤 영화보다 슬펐던 만큼, 어찌면 그보다 더 많이 웃었다. 재밌었다. 그들의 싸움이 즐거워 보여서 엉덩이가 들쭉거렸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대기업 건물 벽에 락카칠을 하고, 한나라당 플랑을 때어버리고, 학교 본관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싶었다. 너무 재밌었다며 마주치는 사람마다 신나서 이야기 하는 나를 인식하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 아주 작은,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에게겐 즐겁고 통쾌한 이야기였고, 그 소소한 코메디가 힘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불쌍하고 결핍된 존재로 정의하기 쉬운 내가 있다. 내 탓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긍정하고 지지하고 있어도, 어느 날 문득 내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막을 순 없었다. 물론 그것이 내 탓이 아니고, 사실은 미치도록 공고한 가부장제의 탓이라는 것, 내가 아무리 애써도 또 그만큼 저지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그것의 원인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도 그 순간 드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순 없었다. 그리고 그것까지 긍정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압박이 싫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나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엄청난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난 상상들을 풀어놓는 친구의 이야기가 그렇게 웃길 수 없다. 상처투성이면서도 지난 연애이야기를 과장해서 몸짓하는 친구의 모습이 그렇게 웃길 수가 없다. 그들의 삶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작은 코메디가 삶의 동력이 된다.

결국 영화 속 주인공들은 결국 미국의 상징적 건물을 페니스로 치장하고 폭파시키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증계하고야 말았다. 그리곤 미친듯이 도망쳤다. 웃었다. 웃을 수밖에 없었고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 ●

by 마냥 웃겨 나누기

가분이 나빠야 하는 데 아무렇지 않다
면, 이런 이상한 거다. 화를 내야 하는
데 그냥 돌아선다면, 이것도 이상한 거
다. 우리에게도 이런 류의 이상함을 강
요하는 현실이 있다. 그 현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것이 미칠 파급효과
를 예측하고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길 지 모색하는 것이 삶이다. 내가 그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삶을 다 살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고 같이 한번 살아 보자는 거
다. 이런 일이 있다 카데요, 가 아니라 이런 씩을 일이 (혹은 경사가) 있다 카데요, 불루랄라 (혹은
씩씩대며) "짜여기 물으로 가 봅시다", 카는 거다.

바보노의 정·세·판·단·

!@#%\$#^

연 세에서 5월하면 떠오르는 것은 계절의 강왕짱, 봄맞이춤초, 연대장터 따위가 아니
다. 그 이름도 아름답고 설레는 "아카라카!" (오오 셋;ㄱ)만이 연세의 5월을 점령하
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올해는 좀 특이한 상황이 생겼다. 응원단의 횡포를 참다못한 중운위
원들이 아카라카 보이콧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와 연동되어 응원단과 중앙운영위원회
간에, 더하여 중운위원과 중운위원들 사이에 격한 분란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잠깐, 아카라카의 세 가지 모토.

학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국 최고의 명문사학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고자, 그리하여 학벌이 주는 권력을 어떻게든 받아먹어 보고자 궁리를 하던 끝에 나온 것 중의 하나.
연고전이라는 연세대/고려대/여기서 왜 연세대가 먼저 나오냐고 생각했나, 혹시 당산-고-가 간의 친선
경기가 있는데, 경기를 하면서 생기는 경쟁심이 각 학교 학생들의 단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
면서 아카라카를 적극적으로 키우기 시작한다(아마도). 어느 학교 축제가 더욱 간지나고 더욱 스타일리
쉬느냐가 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돈을 쳐들인다.

차별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됨'에서 차
별은 빠질 수가 없다. 간지나는 캐주얼 연세인에서 오류가 있
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주류개념
자체가 남성중심적, 장애인차별 역사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며,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기에 여기에서 오류가 있
는 인간이란 '그들'의 사선이다. 요즘에는 '배려'가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여성을 배려해야 하고 성소
수자를 배려해야 하고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은 목소리에서 그친다. 왜냐하면 그럴만
한 '여력'이 잘 안나기 때문이다. (오오 잉여인간에게는 잉여
시간과 잉여노력을 투여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하여, 연세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학벌권력의 정점에 서있는(혹은 거기서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대한민국 명문사학 연세대, 포용과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차이를 차별로 만들
고 배려를 하고 온갖 포비아적 발언과 행태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다니는 연세대, 연세인은
하나라면서 정작 중요한 때는 학생들을 (개)무시하는 연세대, 연세인은 당신들 모두라면서 학교를 청소
하고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피땀을 똑똑 빨아먹고 있는 연세대, 이 연세대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의
심스럽다고? 그렇다면 당신, 파란티셔츠로 당장 갈아입고 '연세여 사랑한다'를 친구들과 한번 어깨걸
고 불러보시라.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분노와 총장에 대한 불신 등등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
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무리없이 갔다면, 당신도 이제 "정상적인" 연세인! (핑긋)

이러한 세 가지 모토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응원단은 티켓값을 만원으로 대폭 인상하
는 불가피한 일을 감행하였다. 티켓값 만원은 너무 비싸다며, 학우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며
반발한 중운위원들에게 응원단은 말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싸야 하는지 예
산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으라는 중운위원들에게 응원단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제란 해방의 공간이어야 하고 대안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
금 연세대의 축제는 어미한가. 이런 뭐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하여 해방의 공간도 대안의
공간도 아니다. 등록금이 아무리 올라도 연세는 최고이며 학생들의 의견이 아무리 묵살되어
도 연세는 하나이며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어도 연세, the best!

이다. 06년 등록금 12% 인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분노하고, 학교 측의 학생대표와의 대화 거절에도 불구하고 축제에서 '아카라카'를 외치는 총장을 향해 환호하던 그 때의 무력감과 패배감은 여전히 내 기억 한자리에 오롯이 자리잡고 있다. 본관은 학생들에 의한 점거 중이었지만, 중운위원들은 노천극장에 가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리 정리를 해야만 했고, 총장님이 발언할 때 함께 들자고 했던 레드카드는 너무나 선명했으나, 뒤에서 아가리(응원단 뒤편에 추임새 넣어주는 사람들)들은 우리를 향해 계속하여 '레드카드 내려!'라고 말해댔다. (그게 총장을 비호하기 위함이었는지 빨간색이 고려대학교의 상징색이라서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늦은 저녁, 본관을 쾅쾅 울리는 학생들의 응원 속에서 송도캠퍼스 양해각서(거의 확정되는 절차)는 체결되었다.

어찌되었건, 예결산 인준도 받지 않는 학생 자치조직으로서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응원단과 아카라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지점이 티켓값을 계기로 폭발하였고, 중운위의 세 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이콧을 결의하겠다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세 가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부터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행사의 예, 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가 아닌 '인준'을 받을 것. 둘째, 올해부터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행사의 결재는 총학생회에서 집행하며 남게 되는 부분들은 학생들에게 환원한다. 이는 이번 단체 티켓팅의 값을 우선적으로 총학생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 실행의지를 보여 줄 것이다. 셋째, 올해부터 '대동제' 행사 중 하나인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행사의 기획도 '총학생회'에서 주관한다. 행사 중 '응원제 행사'를 응원단이 담당한다.

그러나 이 요구안은 응원단이 중운위를 박차고 나가 개인 티켓팅을 무제한으로 하는 등 학

생들을 볼모로 한 기싸움을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구나 축제를 분열시키는 것은 연세를 분열시킨다면 결론은 아카라카를 꼭 보아야만 한다는 열정 가득한 한 단과대에서 중운위 의결된 사항을 재논의하자고 이야기하면서부터는²⁾, 중운위의 신뢰와 의미성마저 한꺼번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아카라카가 중운위를 흔들게 될 줄을,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는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중운위의 안은 학운위에서 의결을 보는 것으로, 아카라카는 본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학우들의, 그간 응원단의 만행을 몸으로 느껴왔던 기간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었기에 '아카라카 보이콧'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아카라카를 보이콧도 불사하기로 결의하고 그 안에서 응원단의 부당함을 시정하려는 중운위의 노력 역시 의미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카라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여전히 아카라카를 보기 위해 수많은 학생들은 밤새워 줄을 서고, 여전히 아카라카에는 대안적인 문화는 보이지 않는다. 한 번의 문제제기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오랜 기간 쌓여온, 심지어 적극적으로 쌓아온 아카라카와 학벌주의,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절실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발점을 발견하였는가? '티켓값 인하'로 문제의 핵심이 흐려지는 않았는가? 아카라카를 뒤덮고 있는 학벌주의와 발전 이데올로기, 정상남성중심성을 해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번 일을 계기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발길에 돌부리가 채이면, 감았던 눈을 와썹 뜨라고 하였다. (연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운동주 '선배'가 말이다.) 눈감지 말자. 즐겁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축제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그 억압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도, 잠깐 가리워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도, 그런 우리들로 인해 사회의 구조는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응원단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것은 눈감고 있던 우리라는 사실을 두 눈 와썹 뜨고 바라보자. 아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1) 기본적으로 배려의 의미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이다.

2) 중운위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을 뒤집은 것에 대해 형식주의적으로 '한번 의결했는데 원소라야'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논의를 만들고 학우들의 현 상황과 문제의식을 명확히 밝혀 실천의 의지를 모으자는 결의를 '학우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쉬운 말로 가버리 패스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문제가 된 단과대는 아카라카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장 먼저 자바로 이슈화시킨 단과학생회였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차별철폐적 연세에 '메롱' 하기!

엄청난 파란 물결과 노천극장의 뱅뱅한 엠프에 기죽지 않고 백양로와 학교 곳곳을 춤추고 노래하며 소다냈던 알록달록 유쾌발랄한 이들이 있었다. 신촌거리에서 난무하는 저 끝없는 응원곡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던, 가열찬 이들이 있었다. 작지만 충분한 엠프로 신나는 노래를 틀어 리어카에 싣고 머리에 꽃을 달고 백양로를 누볐던 이들이 있었다. 지금의 교육정책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구조에, 2MB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FTA에 메롱을 날리며 하고 싶은 말을 피켓으로 화성기로 외쳐대던 이들이 있었다. 땀벌에서 지칠 때까지 춤추고 댄 어버린 이들이 있었다.

즐거운 축제가 아니라 즐거움을 강요하는 축제가 되어 버린 아카라카에, 이 말도 안되는 시

추에이션에, 당찬 메롱을 날리던 그날, 우리는 자유로웠고 행복했고 힘이 났다. 그것은 단순히 하루 놀고 마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까지 말하고 싶어도 말하기 힘들었던 거대한 흐름을 갈라내는 우리의 행동이었고, 우리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실천이었다. 우리는 그 날 파란색 가득한 연세대 안에서 우리의 공간을 찾아왔다.

'연세여 사랑한다'를 외치며 어깨를 걸었을 때, "이것은 단지 노래일 뿐이야"를 머릿속으로 백번쯤 되뇌었던 당신, 머리에 꽃꽂고 이상하게 춤추고 노래하고 외치는 우리를 보고 재들 뛰야, 라고 하면서도 괜히 눈길이고 웃음이 났던 당신,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함께 하는 동작조차 자연스러운 우리가 즐거웠던 당신! (그래 바로 당신!) 함께 하자. 한번 하고 마는 메롱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닫힌 공간, 억압의 공간을, 즐거움을 강요하는 이 공간을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 신촌 주민도, 장애인도, 여성도, 성소수자도, 노동자도, 가난한 자들도 모두가 흥겹게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평등한 대지로, 이제 우리가 함께 찾아오자! (연고전 때도 해볼라카는데, 어떻게 좀 함께 하실랍니까?) ●

해진, 예술이라는 아이들이 성폭력의 희생자가 된 뒤 남한 사회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는 듯 했다. 그러나 결국은 '싸이코, 비정상적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계속되고 있다. 사과 1호가 나오고 2호를 준비하기 까지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다른 믿기지 않는 일들은 줄기차게 터져 나왔다. 너무 유별나서 믿기지 않는 일이 아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싶어서 믿기지 않았던.....

밥유나의 정·세·판·단

성폭력 사범 최연희의 4선 당선!!과 웃차림으로 판단하는 성폭력.

2008년 4월 총선에서는 기가 막힌 결과들이 꽤 있었다.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최연희의 4선 당선 소식이다.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뒤 '식당 여주인인 줄 알고 실수했다.'는 망발을 하지는 않나, 약 한달 여의 잠적 이후 피해자 측을 고소하지는 않나 '구린 정치인'의 뒤끝을 사정없이 보여줬던 최연희. 그가 '시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또 다시 맡게 되었다. 어찌되었건, 국회의원이란 한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최연희의 당선은 한 시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성폭력가해자여도 상관없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과연 최연희가 대표하는 '시민'들은 누구일까? 적어도 성폭력 피해자가 최연희가 대표하는 '시민'일 수 없음은 확실하다.

언제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은 이번 선거에서도 얼토당토않은 '경제논리'와 토착의원이라는 권력에 밀렸다. 결국 이렇게 한나라당 탈당이라는 결과만 남기고 '끝' 나게 된 최연희 성폭력 사건을 보면, 과연 가해자 처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을 남긴다.

법을 통한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법과 친한 자본, 국가의 권력자들에게는 발톱만큼의 피해조차 입힐 수 없다. 또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위계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이는 더욱더 효력이 없다. 성폭력의 '정도'를 따진다면 그 경중을 거론하고, '가벼운'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벌금정도로 그친다면 과연 그놈의 처벌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까? 실상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심지어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없는 대다수의 성



폭력은 소위 '가벼운' 성폭력 아닌가!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볍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되는 현실에서 법적인 가해자 처벌논의만으로 성폭력사건을 해결 할 수는 없다. 가해자 처벌 논의만으로는 성폭력 사건 해결이 불가능함은 최근 또 다른 사례에서 재차 드러났다.

4월 22일, 또 하나의 충격적인 기사가 떴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밀단이 좁아 벗기기 힘든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가 가지런히 말린 상태로 놓여 있었던 점을 보면 강제로 벗겼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가 아무리 높아지면 뭐하나. 성폭력 사건 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피해자 중심주의조차 모르는 이들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면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면서 '피해자 유발론'을 거들먹거리기까지 한다면... 이 뿐인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구초등학교성폭력 사건의 경우, 이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떠나게' 방문 하고, 피해 학생 신원 보호조치 하지 못했다. 2차 가해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대체 '처벌'만으로 무엇이 해결 되겠는가!!

제발 가시적인 것만 보고 국가 이미지만 생각하면서 성폭력 사건 대책을 논의하지 말자. 성폭력 사건은 불행하게도 성별권력이 존재하던 몇 천 년 전 부터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다. 이를 단칼에 없앨 수는 없다. 언론에 보일 가해자 처벌 위주의 대처만 고민하지 말고, 대체 '왜' 성폭력이 발생하는지부터 자세히 알아야 한다. 성별권력관계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이 보일 수는 없다. 성폭력의 경중을 따지는 행위부터 시정하라. 현 사회의 성폭력 가해자들 대부분은 지금 이런 가해자 처벌만을 논의하는 당신과 다른,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여성주의적인 관점 없는 성폭력 대처 방안은 썩 없는 낡식대에 불과하다. ●



* 이 글은 거대한 이론은 아니다.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나의 지식이 한없이 부족하여, 글은 대충 그 반역함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동물 해방론이 아니라 애완동물 해방론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는 것 역시, 나의 동물과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집 고양이 정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칠게 동물을 야생동물, 애완동물, 가족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난 가족은 키워본 적도 없으며, 야생동물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조차 못한다. 그래서, 그저 귀여워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 새끼 고양이를 '사' 왔으며, 동등한 생물체로서 보다는 내가 '키우고'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고양이를 바라보아왔던 나날들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가지고 노는 동물로만 바라보는 지금 사회의 시각에서는 애완(愛玩)동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욱 명확한 듯 하여, 이 글에서는 비정치적이고 동물 억압적인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자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의 애완동물을, 혹은 주위의 애완동물을 당신도 다시 한번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어의 애완동물* 해방론

애완동물해방론의 천적, 꼬맹이

개인적으로 나는 '꼬맹이'들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여기서 '꼬맹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고,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자기중심적으로만 사고하는 그 특정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꼬맹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 역시 넓리고 넓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꼬맹이'에 대한 분노 게이지를 마구마구 올려주는 사건을 목격한 덕에, 나이만으로 대상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짜내려가는 데에 있어서, 우선 '꼬맹이'가 아닌 어린 아이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하고 시작하겠다.

언더우드 기념관이 있는 숲과 주택가를 잇고 있는 애매모호한 공간에서 어떤 '꼬맹이'가 태어난 지 3-4개월쯤 되어 보이는 강아지를 목줄을 묶어 데리고 다니고 있었다. '꼬맹이'가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하자, 강아지는 주춤주춤 들어갈 것을 거부했고, '꼬맹이'는 억지로 목줄을 잡아당기는 실랑이를 계속하고 있었다. 집에 가는 걸음을 늦추면서 나는 계속 '꼬맹이'와 강아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꼬맹이'는 열이 받았는지, 목줄을 잡아 올렸다. 허공에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렸다. 나는 그때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다. 너무 놀라서, "저기, 꼬마야"라고, 누군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 친절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목줄을 들면, 강아지가 숨을 못 쉬잖아. 강아지도 그렇게 하면 아파." 심지어 '꼬맹이'가 알았다고,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상황에서 발걸음을 돌리면서 "미안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왜냐구? 난 '꼬맹이'들의 분노 게이지가 너무 무섭다. 모든 관계의 중심이 자신의 감정이 되어버리는, 엄마가 사고 싶은 것만 사준다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꼬맹이'들이 내

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강아지를 정말 목을 대롱대롱 매달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설마 '꼬맹이'가 강아지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화를 입을 할 것인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나는 그것이 무서웠다. 그래서 심지어 사과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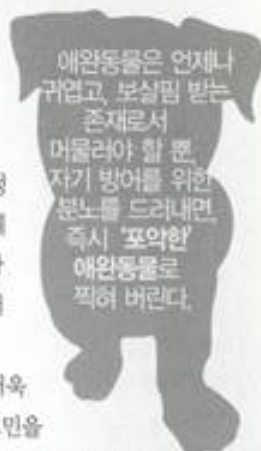
많은 어린 아이들이 애완동물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어린 아이들의 인격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되고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돌보도록, 타인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책임감을 배운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배우는 '과정'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과정'이기 때문에, 실험대상이 되어버리는 애완동물의 생명권이나 환경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 죽어가는 실험실의 흰쥐¹⁾와 애완동물은 인간보다 낮은 신분의 '동물'이라는 면에서 별다를 것 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책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는데, 실상 아이들은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 아무렇지 않게 남의 손에서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을 가져가고, 꽃을 잡아 뜯고, 동물에게 무언가를 던지는 '꼬맹이'들이 세상 천지에 널렸다. 애완동물을 옮길 때도, 애완동물에게 편한 자세라기보다는 자기가 안고 싶은 대로 잡아 끌어가기 일쑤다. 그럼에도 '꼬맹이'가 가진 면책 특권 덕분에, 애완동물 학대의 문제는 '포악한' 애완동물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버린다.

애완동물은 책임감 없는 '꼬맹이'의 온갖 학대를 받게 되지만, 어떤 거부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애완동물은 언제나 귀엽고, 보살핌 받는 존재로서 머물러야 할 뿐, 자기 방어를 위한 분노를 드러내면, 즉시 '포악한' 애완동물로 찍혀 버린다. 특히, 이를 드러내거나, 사람을 무는 행위가 발생하면 애완동물 훈련소에 보내거나, 목줄로 묶이거나, 다른 방에 감금되는 등, 애완동물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애완동물은 생명권이나 환경권뿐만 아니라, 공포

를 느낄 수 있는 권리 또한 박탈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마냥 귀여운 '천사'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천사'에게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감성이다. 그리고 애완동물 역시 그 관점을 가진다고 전제된다. 인간과 애완동물 사이에서 언어로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애완동물이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그것도 '천사' 같은 어린 아이에게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상상 불가능한 영역이다.

하지만 애완동물은 그런 어린 아이에게 공포감을 느낄 확률이 더욱 높다. 자기중심적으로 밖에 세상이 구성되지 않고, 더 나아가 고민을 해나갈 수 없는 '꼬맹이'들은 애완동물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거나, 화를 낼 수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애완동물은 움직이는 인형 정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는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고, 애완동물은 화를 내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를 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보호되어야 하는 어린 아이를 위해, 부모 혹은 그 외의 주위 사람들이 그대로 애완동물을 다른 집으로 넘기거나, 버리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다. 어린 아이와 애완동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책임은 본분을 잊은 채, '포악해진' 애완동물에게로 넘어가버릴 것이다. 애완동물을 기쁨으로써 '인격향상'을 한다는 '꼬맹이'들은 사실 애완동물의 생명권, 환경권, 화를 낼 권리 등의 모든 것들을 박탈하고, 절대적 희생을 요구하면서, 애완동물과의 착취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만 진행된다. '인격향상'은 개물.

그럼에도 지금도 어디선가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애완동물을 '사주며' '네가 '책임' 지고 키워야 해'라는 무책임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있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아직 관계에 대해 미숙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다른 생명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1) 흑사구의 오해를 막기 위해 덧붙이자면, 실험실 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절대 애완동물과 실험실 쥐의 생명권에 대한 우월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이 글은 '애완동물'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것이기에, 실험실 쥐의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한 비유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우월관계 속에서 '꼬맹이'가 애완동물에게 휘둘러 수 있는 권력을 정당화시켜주고, 관계 속에서의 모든 책임을 자신보다 하위에 위치한 상대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그 '과정'이 정말 관계를 배우고 있는 '과정'인가. 어린 아이들이 처음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뚫어내려고 하는 첫 '관계'를 이런 폭력적 방식으로 시작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꼬맹이'들의 왜곡된 인격을 형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에, 상대의 개인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 자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완동물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과 마주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평소에 하던 장난에 좀 더 신경질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것을 '포악한' 애완동물의 행동이라고 규정짓는 것에서부터, 애완동물은 생명이 아닌 귀여움 모드만 입력된 로봇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아직 소통, 주고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꼬맹이'들에게, 특히나 애완동물과의 착취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특히나 그들을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들었을 때에는 '꼬맹이'의 폭력성과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가 늘어날 뿐이다. ●

글을 쓰다 말고 쓰는 Thanks To 보노

마감날 글을 쓰고 있는 나에게 음악 선물을 준 보노 감사♡

그 음악 선물은 silver lining [순이 better blues]

by 밤이다. 밤만 되면 까칠해지는 우리집 고양이가 보고 싶다. 상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눈도 핏줄이 보이게 되고,
그런 트라우마를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는
때론 자를 종종 자주 사귀었다.
스스로에 의해 시작되기도 하고,
주위의 증상 없음에 의해
모습을 숨기고,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지켜본다.
트라우마는 그 본질을 마주했을 때,
그것에 분노했을 때,
같은 상처가 아닌 변화의 힘이 된다.
오늘의 트라우마 :
마주보고, 분노하고, 변화하기

오늘의 트라우마



피겨스케이팅 선수인지 국민 여동생인지 모를 김연아가 TV에 나와서 얼음을 자른다.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들이 나와서 얼음판을 누빈다. 그 아이들의 머리에 뽕뽕뽕뽕 왕관이 씌워지고 배꼽인사를 하며 김연아가 말을 건넨다. "제 2의 김연아를 보고싶지 않으세요?" 전혀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제 2의 김연아'가 먹히는 이유는, 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으로 추앙받는 또 하나의 아이돌을 원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진짜로 노력부르고 춤추고 대놓고 예뻐하는 아이들은 식상하고도 찬박하니깐, 고상하게 스케이트를 타고 세계

적으로 인정받는, 그러나 귀여하고 주시할 수 있는 화려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김연아를 동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피겨 스케이팅을 즐기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청년들이, 할머니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누구 나 집에서 가까운 빙판으로 스케이팅을 돌려주고 나가서 빙글빙글 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2의 김연아 가 되어 국위를 선양하려는 욕망의 개입 없이도 어린아이들이 춤을 출 수 있고, 그게 지지받으면 좋겠어요.



'죽음에 대한 독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고 보려 간 그 영화. 녹차밭이 펼쳐진 사이의 양로원, 그다지 조용할 것도 벽적할 것도 없는 사건의 나열이 이어지다가, 주인공 두 사람의 이상하고 괴로운 동행을 따라가 비춘다.

오늘내일하는 할아버지와 아무리 봐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라는 조합이 잘못된 걸까? '통제가 되지 않음'을 무기로 물리적 폭력도

용인되는 환자와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는 간병인이라는 조합이 잘못된 걸까? 제멋대로 구는 남성 노인 과, 그것을 명백한 모상으로 감싸는 젊은 여성의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역겨웠다. 어제 노인에게 맞아서 딸이 부러진 간병인이, 아이처럼 구는 노인과 슬레잡기를 하거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피우고 침착하게 행동하던 근육이 울룩불룩한 노인이 자다가 떨기 시작했다고, 옷을 훌렁 벗고 예쁜 가슴을 붙이며 노인을 감싸안은 장면은, 심지어 예상조차 할 수 있었던 역겨움이었다. 영화를 보는 두 시간의 러닝타임 중 한시간 반 정도는 "이건 그저 남성 노인의 섹스판타지인가?"라는 불편함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불편한 것은 이 영화가 외국의 무슨 상인가를 함꼐했다는 건데, 그들이 보기에는 장영 이것이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다.



광우병으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매일 저녁 2MB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청계광장에 수만의 군중들이 운집하여 촛불을 들고 광우병 쇠고기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말한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중들을 기만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그 원동력으로 자본의 이윤을 축적하는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은 "경제 살리자고 이명박 뽑아냈더니 국민을 다 죽인다.", "사민이 이명박을 뽑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다.", "총선이 끝나더니 본색을 드러낸다." 등의 개념어들을 뿜어내고 있다.

보고 싶었고, 함께 하고 싶어서 홀로 나간 청계광장. 한 사람이 겁어다닐 공간조차 없어보이는, 뿔뿔이 밀집한 사람들. 발언자가 잘 보이지도 않는 무대. 앞에 나간 사람이 한 마디 할 때마다 촛불은 일렁였고 군중들은 환호했다. 나는 촛불들이 일어날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힘인가, 심장이 조여왔다. 그러나 또한 지을 수 없는 생각이 있었다. 끊임없이 배후 세력이 있다고 외

위대는 정부와 언론들 속에서, 나는 운동권이 아니라고,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다고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너무 치우쳐있다)며, 폭력적이라 국민들로부터 호응받지 못한다며, 하여 오히려 민중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나는 일정한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논리들이 투쟁하는 이들, 운동하는 이들을 매도하고 이 사회와 투쟁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게 하는 눈가리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광우병 집회에서 소위 '운동권' 티 안나기'에 열중하는 이들과, 운동권들을 대놓고 배제하는 이들과,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이들을 보았을 때,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누구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동안 멍하게 생각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혁명이 일어난다 해도 전혀 놀림지 않을 이 시대에, 민중의 힘을 확인하고 있는 이 자리의 나와, 민중과 분리시켜버린, 혹은 분리되어버린 나와, 겁먹고 너무 쉽게 그들을 규정해버리는 나와,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갈등하고 합치시키려고 노력하다 그만 힘이 빠져, 길가에 앉아 버렸다.

촛불의 물결은 파도를 타고 있었다. ●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어떤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그동안이나 잊고 살만큼 잊고 싶었던 기억이기도 하고, 이렇게 퍼뜩 떠오를 만큼 인상깊은 기억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몇 년이나 지난 기억이 감각을 타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다.

신촌에서 출발하여 강남으로 넘어가는 그 버스를 타면, 한동안 머리가 율리도록 멀쩡거리다가 어느 순간, 고가 도로에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달리는 시점이 있다. 그 도로를 지나면서 아래로 훤히 보이는 큰 길에 멍하니 눈길을 던지고 있다면, 빌딩 숲 사이로 빼꼼히 고동 학교 하나가 숨어 있다. 격렬한 감정들과 억압의 기억들과 폭풍같이 몰아치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영적있는, 내가 다니던 학교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비좁고 각진 공간에서 다른 모든 냄새를 제치고 살냄새로 다가왔던 그 사람이 머리 한가운데 떠오른다.

안녕, 옛 애인.

우리는 사물함이 준비하게 되어선 복도에서 만나곤 했다. 손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때로는 간지럼을 태우기도 했다. 잣곳은 친구들은 '스킨십이 야한데?'라며 놀리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그쳤지만, 눈치빠른 어떤 아이들은 '재네 이상해'라고 말을 길게 늘어뜨리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3층에서 4층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창틀에 앉아 초콜렛을 먹거나, 머리를 묶어주거나, 때로는 말다툼을 하기도 했는데, 5층으로 올라가는 한 학년 위의 선배들이 '재네 뭐야? 레즈야?'라고 들으라는 듯이 저희들끼리 내뱉은 말이 날이 선 채 귀에 박히는 날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잡혀서는 안 됐다. 다 낡은 나무 의자들이 두서없이 쌓여있는 창고에 들어가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기도, 아무도 가지 않는 늦은 시간에 몰래 예배당에 들어가 피아노를 치는 그녀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다. 전체 예배가 있어서 전 학년이 대강당에 가는 날에는, 돌이켜 자리를 빠져나와 무대 뒤로 들어갔다. 옆으로 난



계단을 3층 정도 오르면 조명이 붙어있는 무대 천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천장 사이로 얼굴을 갖다대고서 저만치 아래를 훑쳐보며 키득거렸다. 나를 발견할 수 없는 반 아이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쫓아오지 못할 교사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상상조차 못할 교목의 작은 뒷통수를 지켜볼 수 있는 그곳이 좋았다. 나는 신이 나서 들성들성한 나무 천장 사이를 뛰어다녔고, 그녀는 걱정 어린 얼굴로 보다가 걱정이 넘쳐 화가 난 채 다기와 내 손목을 잡아끌기도 했다.

우리는 그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했다. 적막한 카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다가 건너편 테이블에 앉은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 사람의 눈빛에서 기분 나쁘고 무서운 의미를 읽어내고는 마음이 편치 않아 신경질적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나와 의 싸움 끝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울고 있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무작정 올라갔던 1호선 전철 안에서, 온 신경을 그녀에게 집중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대강당 한 편에 있던 무슨 역사 기록화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안기는 그녀를 보듬다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학교 직원의 모습에 심장이 멎을 뻔한 것은, 꿈에서도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무서운 경험이었다. 그렇게, 안전하리라 생각하면 공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아니, 불안함을 인식하는 공간이 늘어갔다. 한번은 철문이 굳게 닫힌 옥상에 창문을 통해 기어 올



라갔다. 거슬릴 것 없이 트인 파란 하늘이 끝도 없이 가슴을 채웠다. 나와 그녀는 한껏 풀어진 채 그 하늘을, 옥상을 스쳐가는 바람을 느꼈다. 그리고 옆 건물 직원의 신고에 의해 수위 아저씨에게 붙잡혀 교무실에 불러갔다. 목소리를 죽이는 듯 마는 듯 우리에게 뭘 하고 있었냐며 다그치던 교감, 애써 태연한 척 웃는 듯 마는 듯 모든 '레즈 혐의'를 부인하던 우리 둘, 들리는 듯 마는 듯 우리를 힐끔대며 지나가던 선생님들. 그 시간이, 그 공간이 왜 그렇게 괴로웠는지 그 때는 몰랐다. 숨 쉬기가 힘들던 교무실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은 교사들의 시선이, 식은 땀을 흘리며 믿을 것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늘어놓던 내가 왜 그렇게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자꾸 그 옆 건물이 생각나고 내내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라고 부를 대야 하는지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질문에 취약했기에, 쏟아지는 모든 사람들의 의문을 줄여야 했던 나와 그녀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붙어있고 싶었던 우리는, 어떻게든 그들을—그것들을 피해야만 했다. 피하는 것의 귀결은 숨는 것이었다. 숨는 것의 끝은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공간이어야 했다. 암모니아 내가 코를 찌르는 작고 각진 3층 화장실 첫 번째 칸이 우리에게 제는 가장 마음이 편한 공간이었다.

화장실은, 밖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오가는 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와 입을 바짝 붙이고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제가 떨어져나간 서로를 안았다가, 뽀뽀를 하기도 좋았다. 가끔은 악취에 머리가 어지러운 지경이었지만, 하얀 샷시의 자그마한 창문을 마음껏 열었던 적은 없었다. 학교는 빌딩 숲 사이에 있었고, 옥상에서처럼 건너편 건물의 주의깊은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할 것을 경계했다.

그렇게 학교 화장실, 이대 역 화장실, 집 앞 전철역의 화장실을 전전하게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데이트 코스는 화장실 투어라도 된 듯한 우스꽝스러운 경로였다. 칸막이 밖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며 하는 말에 캄캄 캄캄 놀랐다. 의심이 많은 누군가가 칸막이 아래로 우리의 발이 네 개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는 상상에 함께 웃으면서도 불안에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렇게라도 막간을 이용해 서로에게 가까이 있고 싶었다. 언젠가 청소를 하는 미화 노동자가 '뛰야, 둘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라고 소리친 말이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들리고, 귀에서 울리고, 뒷통수를 따라다니며 '레즈비언!'이라고 가리키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도망치던 날은 놀랐던 그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 도망자의 신분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독기를 가득 품은 채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고, 함께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교실에서는 반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화장실에서 두 명이 같이 나가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릴까 노심초사하는 일상은, 천천히 그 모든 즐거움과 사랑스러움과 기쁨을 잠식해갔다. 나는 히스테리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위험한 상태를 즐기거나, 가혹하게 그녀를 대하는 것으로 비뚤어진 해소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둘 모두를 지치게 할 뿐이었다.

그렇게 그 시절은, 관계에 대한 부끄러움 한 움큼과 억압에 대한 무거운 기억 한 가득을 되짚어야만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으면서도, 가슴에 뛰놀던 연애의 빛깔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해냈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그토록 긍정의 힘으로 가득한 시공간을, 너무 늦게, 천천히 괴로워하며 긍정해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현재의 나는 연애를 하고 있고, 지금도 숨어야만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애인을 만나려거든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은 그녀의 방이고, 어둑어둑한 거리에서도 손을 잡고 걸으려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된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누군가와 인사를 하게 될 때마다, 화들짝 떨어지는 손바닥에는 싸늘한 기운이 지나간다. 열쇠를 돌리고 들어서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오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힘주어 꼭 안아준다. 그제서야,



‘보고싶었다’는 말이 소리내어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 있다. 우리가 버스정류장에서 ‘잘 가’ 뽀뽀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헤테로색수열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도록 강요하는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의 횡포이고,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우리가 언제든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는 그들의 호모포비아가 만들어 낸 폭력이라는 것을, 이 구멍투성이의 허접한 세상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다. 꼬집어낼 수도, 설명할 수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받아냈던, 그 공격에 무기력한 채 화를 내며 자학할밖에 도리가 없던 열일곱의 나보다는 단단하게 혹은 툭툭하게 대처한다. 더 이상은 놀라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거나,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지 않는다. 오히려 간을 좀 봐서 상대가 될 것 같으면 물어뜯고, 조롱해댄다. 그런 노력, 혹은 시도가 내 언어로, 내 힘으로, 가능해졌다.

나에게 여성주의는 일면 그런 의미다. 나를 긍정하고, 나의 경험을 긍정하고, 심장이 못 견뎌서 눈물조차 나지 않던 고통이 유독 왼손목에서 욕신거리며 만질 수조차 없던 기억을 따뜻하게 더듬으며 힘낼 수 있는 언어와 경험과 공간의 안식을 얻어낸 시간의 연속이다. 뚜렷거리며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내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그것에 공감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고, 이런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쏟아내는 친구에게 “난 이제 괜찮아. 울지 마.”라고 토닥여 줄 수 있게 된, 소소해보이지만 중요한 편안함을 찾은 과정이다.

그래서 멀정이는 버스 안에서 시작한, 이미 딱딱해져버린 기억을 머릿속과 가슴 속을 훑내고 파헤쳐 꼬집어내는 회상의 끝은, 한 가지 쓴 의문이다. “그녀도 그녀의 레즈비언을 긍정하고 있을까? (그녀는 여성주의를 만났을까?)”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

- 라즈베리파이

* 이 글에 나오는 학교에 대한 서술을 보고 제가 누구인지 알아챘다면 혼자 마음속에서만 그 사람이구나 생각해주세요. 아웃팅-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영락한 폭력입니다.



원지 모를 연애치고 빠지기 연애 뭐 별거 있겠나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했는데 연애 뭐 별거 있고 남들 하는대로 하면 불편하고 불행하다이다. 소통, 소통, 입에 붙이고 사는 여성주의자들이 입을 열었으니 여성주의적으로 소통하는 관계 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원지 모를 연애 -
치고 빠지기

관계맺기는 경력이 아니라구, 이 바보!

어제는 즐거운 금요일밤, 내가 좋아하는 토요일 전날의 금요일 밤! 더구나 플넵새와 함께 서늘한 바람이 팔뚝을 스치는 다정한 초여름 밤! 나는 촉박한 마음을 살짝 외면하고 (이 즈음에서 야니임과 - -라며 눈을 부라리고 입을 찌그러뜨릴 누군가의 표정이 떠오르는군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사는 곳이 다들 멀고 이제 생활이 달라서 이렇게 한번 모이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초여름의 금요일 저녁의 홍대거리에서 웃으면서 만났던 우리는 격하게 헤어지게 되었으니 바로 한 바람둥이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과양(공교롭게도 자신을 사과양이라고 부르고 있음.)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야 하니, 각각의 연애 상황에 기반한 다분히 편협하고 감정이 섞인 소개로 해볼까 하옵니다.) 우선 칼사마, 다음 달에 애인과의 1000일을 앞두고 있는, 지방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2주에 한번은 올라오는, (사실은 어제 만났다고 올라온 김에 급조된 것임) 애인과 이상할 정도로 알콩달콩대고 있는 사람이죠. 다음은 B, 처음 연애를 시작한 이래로 맞고 있는 가장 긴 공백기에 살짝 불안해하고 있는, 고학번 여학생이며 연애할 시간도 없는, 그러나 열심히 '연애의 조건'을 외치다 그 비현실성으로 주변인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는 이입니다. 조금 늦게 이 자리에 합류하였던, 6년 간 솔로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실은 더러운 치정극(이라고 B가 계속하여 주장하였음.)의 중심에 서 있는 간악한 웃음의 BK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표정을 짓든 심지어 '맛있어'라고 말할 때조차 눈물글썩한 얼굴이어서 끊임없이 B에게 지탄받았던, 바람둥이의 전설을 알면서도 휘둘리고 있었던 우리의 사과양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사과양, 그녀의 이야기는 예상하시겠지만, 간단합니다. 이 친구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한 남자아이(마초라고 부르고 M이라고 씁시다. 아 뭔가 부족해.)와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이 M은 그 동안에 또다른 직장동료에게 집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헤어지고 M은 지속적으로 집적대던 판 직장동료와 사귀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계속 집요하게 사과양에게 연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에도 "뽀해"라는 기만적인 문자를 보내와 모두를 분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고, 사과양은 그 아이와 헤어지고 나서 잘 먹지도 못하고 불행한 감정에 휩싸여 M과 연애 중인 그녀를 비난하고 미워하기에 이르렀고, 여전히 M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M의 연애수법은 변했습니다. 너무 변해서 굳이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짐작하시는 그거 맞네요.) M과 연애하는 그녀도 사실은 사과양이랑 똑같이 말린 것입니다. M은 나쁘니까. 바람을 뺐기 때문에? 아닙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없었고 심지어 관계를 잘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속였으며 동시에 하는 두 개의 연애를 각각의 상대 탓으로 돌리는 회피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분명하기에, 나아가 이러한 상처의 역사를 이후 자신의 자랑스런 경력으로 남길 것이 확실하기에 나쁜 것입니다. 사과양은 M의 연락과 그의 정서장애와 나르시즘에 싸울 만큼 싸웠고 지칠 만큼 지쳤지만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그의 집요함에 나가떨어져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격하게 분노하였습니다. B는 사과양에게 당장 M에게 전화하여 지금 연애 상대에게 이야기하겠으니 이런 비열한 짓거리는 그만두라고 말하라고 (칼사마는 이미 자기가 그 이야기했다고), BK는 당장 그녀에게 전화하여 M이 그러고 있다고 일러바치라고 (칼사마는 이미 자기가 그 이야기도 했다고) 다그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M을 좋아하고 있는 너의 욕망을 긍정하여 그냥 연애를 하라고 (우리의 칼사마는 그 이야기마저 이미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은 천차만별이었으나 그 중심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라고 봐요, 그/녀가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많은 연애관계를 서로에 대한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그의 통제가 '보살핌'이 되고 '관심'이 되는 것, 둘의 관계를 제외한 다른 관계들을 주변화시키는 것(왜 흔히 연애하면 사라졌다가 끝나면 돌아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서로에게 일변이 되어야 하는 것,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만 하고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 등등이 그것입니다. 연애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관계들처럼 일정한 시기에 혹은 일정한 상황에 더욱 특별해지는, 크게 다를 것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연애에 대한 이런 정의를 풀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대부분의 관계를 뜨겁고 찌질하게 하고 있기에, 상처받고 상처주고 그것을 복구하고 치유하는 데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기에, 저에게 관계의 문제는 말하는 것 이상의 치열함이거든요.

우리는 사과양도, 새로운 그녀도 욕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M에 대해서는 욕했습니다. 각각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M은 너무도 명확히, 관계기피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이성애 중심적인, 너무도 철저히 가부장제의 연애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도 그 것을 뛰어넘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 그럼에도 생기는 나의 욕망과 감정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생기네요.

어쨌든, 사과양 힘내요! 힘들고 외로워서 더 빠져나오지 못하는 연애라면, 이제까지의 자신의 관계 맺기를 성찰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신을 지지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보살피고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은 연애관계이기에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나저나 나도 내 고민들과 반성들을 실천해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안되려나.)

by 그치만 지금은 당신들 덕분에 딱히 아쉽지 않아요, 보노

건강한, 질투는 나의 힘

애인에게 또 다른 애인이 생겼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쨌든 온갖 세상 속의 연애 이야기의 중심에서 있는 '바람과 질투'라는 키워드가 머릿속을 뱅글뱅글 돌았지만, 내가 학습해온 그것들의 의미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모든 연애를 지배하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와, 누군가의 연애 이야기에서 절대 빠지지 않던 질투에 대한 설명은 나에게 익숙한 싸움과 화해만을 남길 뿐이었다. 바람과 질투의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래서 고민은 시작되었다. 연애라는 관계 안에서 바람과 질투는 뭐길래 나를 괴롭히는지, 세 명, 네 명의 연애는 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실제로 왜 힘든 건지. 진짜 내가 이 세상 연애 각본에 마취되어 있어서 인지.

누군가와 전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나와 맞닿아 있을 수는 없다. 서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서로의 접점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고정된 관계 따위나 점진적으로 채워지는 관계 따위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연애라고 명명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변화할 것이라는 당연한 가능성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고, 틀에 박혀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사소한 변화, 어쩌면 필연적일지도 모르는 변화들이 바람이라는 말로 질투라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버리는 연애 각본에서 벗어나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애인에게 다른 애인이 생겼다는 걸 부정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었다. '그 관계는 그냥 연애 비스무레한 순간적인 어떤 것일 뿐이야'라는 말은 그 순간의 나에게 위로가 될지 몰라도 그들의 관계를 멋대로 재단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비난해도 그건 관한 시비일 뿐,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는 것이 정해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냥 그런가보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끊임없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 때문이었다. 언어의



부족함과 원지 모를 공허함으로 밖에 설명 못했던 '질투'는 과연 뭐였을까. 자꾸 뭔가를 더 말해야 할 것 같고, 자꾸 뭔가를 더 실천해야 할 것 같고, 자꾸 자꾸 일기장에 이야기를 지어내야 할 것 같았던 건 뭐였는지, 애매모호한 세 명의 연애가 중국에 다다라서야 조금 알았다.

질투가 나는 건 어쩌면 당연했다. 애인이 다른 애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럴 때도 많았지만 그건 식상한 것이었고, 담배 한대면 해결되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접을 생각은 없었다. 거창하게 말해서 그건 세상이 정해놓은 각본에 휘둘러서 말리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했다. 다른 애인을 만나는 것이 질투가 나서, 관계를 정리해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기에 나의 질투가 오로지 애인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기를 바랐고,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말하는 질투가 나에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애인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나의 욕망을 설명할 수 없었다. 연애가 아니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 고민하는 관계 맺기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 질투들과 건강하게 소통해야 했다. '바람+질투=맹비난'이라는 공식에 나의 고민들, 그리고 그 끝에 대충대충 매달린 질투들을 대입하기 싫었다. 이 질투들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서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매듭은 꼬여만 갔다.

처음엔 연애를 세 명이 하든, 네 명이 하든 그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고민들이 쌓이고, 감정 노동에 치이고, 풀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때, 그래서 결국 질투를 입 밖에 내고, 그것들 설명하려고 할 때 수도 없이 부딪혔다. 그게 아닌데 라는 말 뒤에 어떤 말을 붙여야 할지 몰랐고, 결국 연애를 세 명이 하는 게 문제인가라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악순환 되는 고민들이 내 머릿속에 안착했다. 이 말과 저 말이 어지럽게 섞여버렸다. 자처한 일이지만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항상 수많은 축수를 뿜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힘들었다. 많은 부분 귀찮기도 했다. 편한 고민거리가 생긴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내 질투와의 건강한 관계 맺음을 통한 성장을 욕망하고 있었다.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싶었다. 다른 애인 만나러 간다고 해서 빠지고,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루에 백 번씩 주고받고, 누가 우선순위인지 재고, 질 수 없다는 말에 그건 거짓말이라며 싸우는 그런 관계에

서 벗어나고 싶었다. 쉽지 않았다. 벗어나고 싶었지만, 당장은 다른 애인 만나러 가버리는 것이 너무 실기도 했다. 뭐가 뭔지 몰랐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내 건강한 질투들은 허공에 떠돌았다. 건강한 질투의 존재를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점점 나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결국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오래가지 못했다. 수목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세 명의 연애는 끝이 났고, 소처럼 견디고 개처럼 싸우던 그 때가 이제 뭐 농담거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투는 여전히 있다. 모든 게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애인은 다른 애인을 만나러 가지 않지만, 질투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관계를 끝낼 수 없었고, 또 다른 관계를 상상하고 만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결국 망했다고 생각한다. 더 잘하고 싶었고, 성장하고 싶었다. 또 전(前) 애인한테 미안하기도 하다. 성장이라는 말로, 성찰이라는 말로, 내 잘못된 판단들을 덮으려는 것이기도 했던 것 같아서. 하지만 아쉬운 만큼 남은 것이 많다. 건강한 질투는 아직 많이 생존해 있다. 그 질투들을 잘 풀어내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 연애든 연애가 아니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더 나은 관계를 상상해야 한다는 게 힘이 된다. 건강한 질투는 나의 힘이다. ●

by 아직도 질투가 나, 나누기



다 지난 일이니까 괜찮다고? 아니!

"애, 너는 연애에 있어서 최고의 강적을 만난거야. 죽은 전부인이라니. 절로 예쁘고 환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을걸. 네가 뭐 하나 아줌마같이 굴면, 내 전부인은 안 그랬는데 할거란 말이지. 살아있으면 비교라도 할 수 있지. 죽었으니 지금 어떻게 늙고 망가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잖아?"

완전완전완전 동감한 (그러나 무슨 드라마였는지 기억나지 않는...) 한 대목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절대 기억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 폐배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에 대항하려 해서는 안 돼요. 100% 질 수밖에 없어요. 질투하고 대항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요. 제발.

저는 보통 애인의 전연애에 대해서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서 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은 절대 아니지요. 질투는 격렬한 폐배의 감정입니다. '내가 더 낫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내가 졌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졌는지 이겼는지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허구의 대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분이 더러워질 밖에요. 나의 방식은 그저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내 애인의 전애인, 내 애인의 전연애에 대해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있었나보다. 그래 저 나이에 연애경험이야 있겠지' 라고 객관화시켜 바라보고, 최대한 나의 일로, 현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나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애인이 첫사랑에 대해 서술한 글을 나에게 보여줬을 때에는 진심으로 병목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화가 치밀어오르는 것을 애써 누르며 굳은 얼굴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서 바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지요.

나는 그 사람의 '전애인'이라는 사람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내 지금 애인이 그 때에 가졌던 강렬한 감정, 인상적인 기억에 진 것입니다. '나'와 '나와 애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일순간 하찮게 느껴질 정도의 강렬한 감정을 그 글과 표현에서 느꼈고, 그 폭풍같은 '사랑'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기분이 더러워서 말도 하기 싫었고, 그 다음에는 짜증이 밀려들어서 손도 대기 싫다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졌다고 인정했어요. 나는 기억에 진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 내가 지을 수도, 없앨 수도, 없는 그 시간의 단편, 단편으로 남아있기에 곱씹을수록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고 생각할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는 사랑의 감정. 그 강렬함에 진 겁니다.

그 기억은 남아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단절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찌겠어요. 인정해야지. 그렇다고 기억상실을 만들거나 뇌수술을 받게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냥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 기억을 인정하고, 현재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가끔 생각하면 열받긴 하나 이제 더이상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건 자제하자고 합의하기는 했지요. 그 생생한 기억이 이 사람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패배감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넘긴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기억은 질 수밖에 없는 상대니까요. 정세판단은 명확해야죠. ●

by 현실적인 페미니스트, 자몽



밤 10시에 TV앞에 앉지는 않지만, 어느새 다운로드를 누른다. 어떤 드라마가 유행하는지 그건 상관이 없다. 훑쳐본다. 누군가의 일상을, 그 일상이 조작된 것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다. 나의 일상이 뻔뻔하고 심지어 멎었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때, 드라마를 훑쳐본다. 타인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욕망하게 되는 건 일탈에 가깝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일탈로써의 훑쳐보기를 넘어서서 드라마를 풀어보는 것으로,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통내기를 대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히/스/테/리,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

몸으로 이야기하는 것, 감정적인 내 언어들을 긍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추상화되는 남성적인 언어들만이 진실성을 갖게 되는 세상에서 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나의 화남, 기쁨, 슬픔, 즐거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언제나 타자화 되어왔다. 게다가 몸과 감정은 여성적인 것들로 이미지화 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들의 언어는 병적인 히스테리로 취급받는다. 특히 노치녀 히스테리, 직장 여성 히스테리 등 여성들을 대상화하는 히스테리 담론은 계속해서 그들의 언어를 신경질적인 정신병으로 내몰았고, 그 원인을 남성과의 관계가 부재한 것에서 찾았다. 결국 비남성적 존재들의 관계 맺기, 소통, 언어들은 치료받아야 하는 결핍된 것이었으며, 그것은 남성과의 연대, 내지는 남성에게의 종속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되었다.

최근 막을 내린 SBS 드라마 온에어 (신우철 연출, 김은숙 극본)의 여주인공들도 그녀들의 히스테리와 입상을 함께한다. 유명 드라마 작가인 서영은(송윤아 분)은 사소한 일에도 격한 톤의 목소리로, 양손 양팔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돌아다닌다. 톱스타이자, 국민 요정인 오승아(김하늘 분)는 시시각각 온갖 자질구레한 신경질로 주변 사람들의 뒤통을 쏜다. 물론 카메라가 잡는 두 여주인공의 모습은 단순히 신경질적인 톱스타와 오버하는 유명 작가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오승아의 신경질, 서영은의 하이톤과 설레발은 분명 그녀들의 언어이고, 그녀들이 세상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방식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녀들의 소통을, 그녀들만의 방식을 온전히 두지 못한다. 서영은을 향한 이경민(박용하 분)의 연민과 애정, 오승아를 향한 장기준(이범수 분)의 사랑과 열정은 세상이 그

서영은의 히스테리는 어쩌면 사회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며, 그녀의 일에 대한 열정이기도 했다. 저항적이었던 그녀의 몸짓이 '귀여움'이 되는 순간 남은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러브스토리일 뿐이었다. 오승아 역시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수단이었던 히스테리를 끝내 드라마 초·중반 동안 계속해서 싸가지 없는 톱스타 이미지로 둔갑해 있었다.



녀들의 히스테리가 세상에 풀려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치이다. 서영은이 머리를 쥐어뜯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원고에 대한 태클들에 화를 낼 때, 오승아가 끊임없이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에 실증이 나서 신경질을 낼 때, 언제나 이경민과 장기준은 특유의 가부장적 어른스러움으로, 때로는 상식을 조금 벗어나는 (금방 다시 돌아오지만) 너그러운 센스로 그녀들의 히스테리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덮어 둔다.

사랑과 성공이라는 이 시대의 어마어마한 담론 아래, 여성들의 언어는 결국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서영은은 "이혼녀에 자식까지 딸린" 그녀의 상황에 의해 그녀의 히스테리를 긍정하지 못한다. 그녀의 히스테리는 어쩌면 사회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며, 그녀의 일에

대한 열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짓은 주변 남성들에게 '외로움'으로 어필되며, 드라마도 그것에만 집중적으로 핀조명을 쏜다. 결국 이경민이라는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서영은은 그녀만의 히스테리를 잃어버린다. 저항적이었던 그녀의 몸짓이 '귀여움'이 되는 순간 남은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러브스토리일 뿐이었다. 오승아 역시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수단이었던 히스테리를 끝내 긍정하지 못한다. 그녀의 히스테리는 드라마 초·중반 동안 계속해서 싸가지 없는 톱스타 이미지로 둔갑해 있었다. 오승아의 히스테리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분출되는 대신에, '싸가지 없음에서 철뿔'이라는 성장 공식에 의해 버려지며, 결국 장기준이라는 성숙한 남성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나아간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오승아와 장기준의 결합은 히스테리한 여성이 성숙



한 남성을 만나 성장한다는 전형적인 남성중심적 스토리를 답습하는 것이었다.

드라마는 이경민, 장기준에 의한 그녀들의 변화를 '성장'으로 포장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그녀들의 가능성을 한계 짓는 일이며, 결국 경계에 서지 못하고 다시 통속적이다 못해 그렇고 그런 연애이야기로 회귀하는 것이다. 드라마가 끝날 즈음엔 그녀들의 언어였던, 그녀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던, 머리 쥐어뜯기와 싸가지 없는 말들은 없다. 진정한 배우, 진정한 작가라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지는 '그들의 그녀들' 만이 있을 뿐이다. 여성들이 히스테리를 치료받고 남성들의 소통 방식에 결합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다. 지금도 예상가능하지 않은, 이성과 몸을 분리시키지 않는, 반논리적이기 까지한 히스테리적 언어들은 정신병원으

로 그녀들의 히스테리는 결국 벽에 부딪힌다. 그것만으로는 남성중심적인 언어로 짜여진 세상에서 원활히 소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들의 목소리는 결국 장기준과 이경민의 목소리로 각색되어 세상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것은 그녀들이 그녀들의 히스테리적 언어들을, 몸짓들을 갖고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직 가부장제의 언어들은 그만큼 공고하다.



로 내몰리고 있다. 정상/비정상의 이분법과 남성중심적 언어들이 가지는 소통의 한계, 관계 맺기의 한계에 대하여, 그녀들의 히스테리를 긍정하는 일은 어렵다. 히스테리를 극복하는 것은 한 여성의 삶에서 성장이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성숙함을 가진 남성과의 관계를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비정상의 범주로 내몰려야 했던 비정상적 존재들에 대한 타자화의 한축이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은 결국 홀로서지 못했다. 그녀들의 히스테리는 결국 벽에 부딪힌다. 그것만으로는 남성중심적인 언어로 짜여진 세상에서 원활히 소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들의 목소리는 결국 장기준과 이경민의 목소리로 각색되어 세상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것은 그녀들이 그녀들의 히스테리적 언어들을, 몸짓들을 갖고 닦



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직 가부장제의 언어들은 그만큼 공고하다.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은 지금의 방식들이 더 발전하리라는 기대에서 오지 않는다. 지금껏 배제되어온, 지금껏 병이라고 말해졌던, 지금껏 비가시화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몸의 이야기가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이다. 히스테리, 그것은 병이 아니다. 오히려 오직 그녀들은 히스테리만으로 생존하게 했던 세상이 더 병들어 있다. 그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경민과 장기준의 호통과 배려가 아니라, 그녀들의 히스테리가 긍정될 수 있는 판이다. 그녀들의 히스테리가 좀 더 긍정되고 그 언어가 온전히 살아서 세상에 나올 수 있을 때, 가부장제의 언어들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

by 방송은 끝났다. 나누기





갑자기 마주친 그 음악에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대며 멈추어 섰던 그 거리를 알고 있는가. 라디오에서 잡음이 두런두런 섞인 채 흘러나오던 그 노래 때문에 차마 내려지 못했던 그 버스를 알고 있는가. 신나게 대화를 나누다가 흘러나오던 그 기타음에 가슴이 저릿하여 맥주와 말을 함께 삼켰던 그 어두운 비를 기억하는가. 원치 않았던 기억의 편편을 사삼기득한 귀로 흘러보내던 그 음악, 그 순간들.

Kiss Kiss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세상은 사랑하기 쉽지 않도록 짜여져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한다. 아프기 때문에 라는 핑계로 그만둘 수 없는 건 밥을 먹는 것 뿐만이 아니다. 나는 나와 내 주변을 사랑한다. 온갖 고민과 소통이 녹아있는, 내가 만들어진 나와 내 주변을 사랑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조건이든 나를 미워할 수 없다. 하지만,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때도 있다. 바로 그 때 버스 안에서 알알한 목소리로 키스를 부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잔잔하지만, 거칠게.

144번 버스는 나를 새벽마다 학원으로 실어갔다. 도시락에서 새어나오는 반찬냄새가 스며스며 기어나오고, 사람들은 냄새의 흔적을 찾아 등이 구부러진

재수생을 찾아냈다. 개의치 않았다. 10년이나 된 털털거리는 CD 플레이어에 CD를 넣느라 정신이 없다. 아, 스위트 피. 난 그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다. 지지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누구든지 상관없으니 지금 나를 긍정해줬으면 했다. 나는 재수생이 되었고, 집은 망했다. 난 이 상황을 긍정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다. 남은 건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는 것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에 가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현실뿐이었다. 참 막막했다. 나는 한창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던 차였다. 막연하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도 해봤고, 교과서가 아닌, 문제집이 아닌 책도 사서 읽었다.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다시 나는 재수생이 되었고, 집은 망했다.

Please, Kiss Kiss
Will anybody kiss me please?
Please, Please Kiss Kiss
Give me strawberry kisses please.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나는 누군가와 소통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을 꺼내어 놓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오염되어버렸다. 기껏해야 '연애나 해' 라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었다. 공동체의 부재와 소통의 부재는 그렇게 나를 외롭게 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지금 힘들어서 그래, 지금 약해져서 그래 라는 위로를 듣는 애였다. 결국 피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진행형인 나의 경험을 외면한다는 건, 나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었겠지만, 그때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려고 했고, 까짓거 대학가고 취직하면 다 끝이라고 얼버무렸다.



넌 왜 그랬니, 왜 너를 사랑하지 못했니. 왜 넌 이야기하지 못했니.
넌 왜 멋대로 살지 못했니. 뿔겨져 나온 스스로가 왜 그렇게 싫었니.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많이 했니. 왜, 지금 나 잘
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못했니. 응?

결국 내 삶의 무게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됐다. 이제와서 조금은 화가 난다. 그때 내
가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 무게를 온전히 받아 질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과 직면
해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 경험들, 내 언어들을 압수당한 느낌이다. 모든게 내
책임으로 돌아오고, 내 탓을 하는 것이 성찰과 동치되는 상황이 싫지만, 그래도 그
당시 내가 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공동체를 찾고, 언어를 배우려고 했다면, 그 시절
나는 좀 더 건강했을 거다. 몸이든 마음이든.

후회는 아무리 해도 늦다. 사실 지금에 와서 그 때 그 찌질한 상황을 나열하고 그것
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가는 것이 힘 빠지긴 한다. 그냥 후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다. 다만 외로웠고 힘들었다. 그때 들었던 음악을 지금 듣는게
아릴 만큼, 딱 그 만큼이었다. 그때의 공기, 그때의 느낌, 그때의 풍경이 떠오른다.
없애고 싶은 기억들이지만, 도시락 하나는 열심히 잘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래, 그때 이런 생각 하나 하는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였다. 괜히.

술과 담배에 절던 그 암흑시대의 끝에 여성주의가 있다. 사람들을 만났고, 공동체를
만났다. 이야기를 했다. 도시락은 되게 잘 먹었었어 라고 말 해봤다. 모두 웃어줬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삶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결국엔 딸기맛 키스를 선사받
았다. 그게 그런거였다. ●

by 사랑해 나누기

강의실에서는
성희롱적, 성폭력적, 성차별적 발언들이
'똥' 유령처럼 떠다닙니다.

문제제기를 할라치면,
그저 유머였을 뿐이다
과학적 조사 결과를 인용했을 뿐이다
나는 가치 중립적일 뿐이다
그것은 학생의 발언이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막지 않았을 뿐이다
등등

'무감각한 내탓이 아니라,
예민한 니탓이다'로 돌려버리는
'뿐이다' 유령이 똥똥 떠다닙니다.

강의실에서 문제제기를 할라치면
두려워지는 것은
사건 처리를 지난하게 아꼈고갈 너희들과
수많은 2차 가해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건 처리를 할라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도 모르는,
몇몇 교수님들의 '똥같은' 이야기들을
모집하겠습니다!

'똥같은' 이야기는 제보자나 교수님의 실명은
삭제된 채, 익명으로 들어갑니다.
'똥같은' 이야기에 기분 더러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공감의 리플이 달립니다.
'똥같은' 이야기는
무서워서 피하지 않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더럽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해당 교수님에게
〈내눈에사과〉 직접 배달 들어갑니다.

강의실의 '똥' 같은 이야기를 받습니다



교정 주제로 들어갈
강의실 똥같은 이야기!
〈내눈에사과 - 강의실 똥같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action-fem@yonsei.ac.kr

● 아, 예 교수님. 저희는 지금부터 교수님이 어떤 별소리를 하실지 기대가대. 어떻게 그 별소리에 대해서 왜그리악그악 물어뜯을까 대가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교수님의 개인 정보가 밝혀질까봐, 학과를 밝히신 부분에 대해서는 ** 처리까지 친절하게 해드렸습니다.

● 말하는 것 같지 않게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군요.

첫 번째 질문. 교수님,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요? "생긴 것 같지 않게"라고 여학생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면, 다들 웃어주니까, 유머 감각 있는 교수님에게는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었나요? 여학생에게 다이어트와 성형을 권하는 사회, 권하는 태도 안 하고 있으면 자기 관리 능력 없다고 구박하는 사회에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던지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발언은 찬답은 반인데, 농담이 반 섞이기도 했어, 라고 하면 넘어갈 줄 아셨나요?

두 번째 질문. 교수님, 그 여학생이 여자친구가 있으면 대체 어쩌시려고 하셨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여남여남여남으로 딱짓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만약 그 여학생이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교수님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이후에 벌어질 호모포비아를 감내하고, 당당히 커밍아웃을 하길 바라셨나요? 그렇다면 그 때는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오, 그래? 생긴 거 같지 않게 레즈비언이네." 이니면 "오, 그래? 생긴 거 같아 레즈비언이네." 둘 다 맥락 상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철환 이성애중심주의와 호모포비아에서 벗어나려고 약간의 예의상 몸부림이라도 쳐보세요.

*위 *일 *요일 *교시. 나는 무근거리는 마음으로 강의실로 향했다. 정각이 되었고, 교수가 들어왔다. 먼저 교수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다. 그런 후에, 수업 소개를 하려고 좀 더 개구열한 자세를 취하더니, 한 학생을 가리키며 물어보았다.

"아, 넌 ***이 뭐라고 생각하냐?"

첫 학생이 머뭇거렸던 것 같다. 좀 더 창의적인 대답이 나오기까지는 몇 번의 섯대질이 더 오고가야 했다. 교수가 결국 호감을 가졌던 답변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였고, 여기에 대해서 교수는 ***의 '이상'은 분명 거기에 있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 심층 분석하기 위해 선생님은 다음 질문을 던졌다.

"한 여학생을 가리키며 넌 남자친구 있냐?"

첫 번째 여학생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교수는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한 마디를 던졌다.

"오, 그래? 생긴 거 같지 않게 남자친구도 있네. (다른 여학생을 가리키며) 너는, 남자친구 있냐?"

'의외로' 애인을 둔 학생들이 많았고, 계속해서 지명되는 '여' 학생들 가운데에서 '남자친구'가 없는 친구는 다섯 번째 즈음에 나왔던 것 같다. 그 학생에게 교수는 드디어 질문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

"너, 그럼 이상형이 뭐냐?"

"없는데요, 그냥 착하면 돼요." 지목된 여학생이 수줍게 대답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 너희들 그런 조건 다 따지는 거 알아. 거짓말도 현실적이어야 믿지 않아. 키가 몇 이상이고, 학교는 어느 학교 이상, 그런 거 다 있을 거 아냐? 얼굴 그마위로 생겨서 조건은 별거 다 따진다는 얘기 안 듣게, 수업 끝나면 재일 먼저 나가게 해줄게. 관찰으니까 말해봐."

그 순간 강의실에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이 폭발했다. 나는 불편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봤는데, 주위에서 웃지 않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고, 모두 이 수업 공동체에 거리낌 없이 동화되었다는 분위기였다.

여학생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상형을 이야기했다.

"키는 175cm 이상이면 좋겠구요, 저랑 취미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여학생이 좀 더 이야기를 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서 교수는 이제 됐다는 듯이 수업 소개에 다시 들어갔다.



● 강의 그마위로 하면서 말은 정말 많다는 얘기는 정말 안 듣게. 미리 강의실에서 사과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관찰으니까 사과하세요.

강의실 통같은 이야기!

강의실 동 같은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이상형이라는 게 결국은 '이상'이라는 건데, 그건 목표치일 뿐이지 절대 현실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저 얼굴에 저런 남자가 생기겠어? ***이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학문이라는 말도, 결국은 목표인 거지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막상 그 후 수업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강의실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위기를 풀기 위한 갈증'으로 대화를 이해했다. 그래서 분위기는 한결 편해졌고, 공부를 할 때는 박세제, 농담 따먹기 할 때는 즐겁게, 이런 암묵적인 동의가 생겨난 듯하다.

나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성폭력이 만발하는 강의실 분위기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수백만번도 더 질문해야 했다. 결론은, 나는 이것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 수업을 뺐다. 이걸 뺐 만큼 다른 과목을 넣느라 '깡깡'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해봤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가 한 일이 잘한 것일까, 하는 후회가 든다. 내가 직접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면, 나처럼 불편했지만 불편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누군가가 동조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선생님의

강의 진행 방식에 드러났던 많은 폭력적인 언행이 나아지지는 않았을까?

이 제보가, 지금도 강의실 내에서 일어나고 있을 성폭력적인 상황들을 근절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뒤늦은 문제 제기를 시도한다. 교수의 권력과 수업 공동체에 대한 그릇된 '배려'와 '적절한 농담'이 버무려지는 그 자정에, 성폭력의 위험이 도사린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좋겠다.

혹시 이 글 읽고 '아무리 그래도 교수님인데, 너무 버릇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나? 정말? 진짜로? 진심인가? '교수님'의 권위는 그들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권위 그 이상이 아니다. 학문적 업적이 아닌 수업시간에 한 두마디 던지는데 그들의 '농담들', 술자리에서 보이는 '추태', 그들이 '권위'를 뒤에 얹고서 휘두르려는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까지도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교수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강의실 언어 성폭력 가해자'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나는 '가해자'에게 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말할 의무도 없고, 피해자와의 공감을 통해서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억누를 의무도 없다. 강의실 언어 성폭력이 발생해도 교수의 권위 요모하는 사회에서, 이 정도의 문제제기(정확히 말하면 '까기')는 내 권리다.

● 문제제기 해주신 분에게, 우선 박수!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개인에게 다가오는 부담,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교수님의 혹은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의 2차 가해들로 인해 언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것'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교수-학생 간의 권력 관계 속에서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에게 '교수에게 대한다' 혹은 '교수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낙인을 찍어내는 현실 속에서, 문제제기를 하느니 수업을 듣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생존의 방법'이죠. 상어는, 그리고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제보자분과 함께 공감하고, 학내에 만연해 있는 강의실 언어 성폭력에 함께 문제제기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사과>에서 교수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강의실 동같은 이야기를 와그작 함께 씌어드리고, 이제 <강의실 동같은 이야기> 해당 교수님에게 배달 갑니다! ●

reply by 동심어 상어

● 교수님, 지금의 학교 강의에서 학생들을 '웃기면서' 함께 수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그 압박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이 그 압박을 학생들에게 '잘 통찰만한' 이상에중심사회의 편견들을 그대로 답습하시는 것으로 극복하고 계십니다. ***을 하고 계신다면, 다수가 휘두르는 소수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공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이상에만을 정상 영역에 놓고, 남성에 게 능력을, 여성에게 외모를 갖추고 그들이 원하는 전형적 남성성과 여성성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는 폭력성이 바로 이상에중심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들을 뜯어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뜯어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 교수님의 발언은 마치 갖에 도포 두른 할아버지들이 승군관대 앞에서 호주제 폐지되면 모두가 '죽는다'고 외치며 날뛰듯이, 그 변화를 역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막판에 전공 수업을 철저히만들, 어떤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일종의 거짓말



썩 짝 짝이 아니었다. 툇, 툇, 툇, 툇 이랬다. 나는 애초에 시계 초침 소리부터 잘못 알고 있었다. 툇, 툇, 툇은 온전히 나의 경험으로 배운 것이다. 고요한 새벽에 창문을 열어 고개를 숙지 않을 정도로만 빼고,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창문을 닫으면 들을 수 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웬지 모르게 저항하고 싶어진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진다. 켜장, 난 시계 초침 소리부터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알아온 것들에 대한 불신이 덩달아 깊어진다.

예민해졌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 언제나 그런 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썩'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랬고, 내 이빨이 희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랬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도 그랬다. 무언가를 새롭게 알았다는 기분이라기보다는 당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배신감이 앞섰다. 그만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 일상들을 너무 믿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었다. 적어도 내 방 시계는 툇, 툇, 툇 하며 가고, 내 이빨은 희지 않고, 나는 어제 나보다 3년이나 빨리 태어난 사람에게 '야'라고 백번은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미끄럼틀을 온 지구의 수억 어린이들이 다 같이 탔다는 걸 상상해보면 끔찍하다. 징그럽다. 나는 내가 재밌어하는 미끄럼틀을 탔지만, 그건 어린이라면 누구나 재밌어하는 걸테다. 켜장 이젠 내 어

린 시절 장난들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어쩌면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확실히 온전히 내가 한 건 없었던 것 같다. 말장난 같은 이런 고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 정말이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똑같은 고민들을 했다. 결론은 없었다. 어떠한 결론들도 내 것이라고 믿기 힘들었다. 그래서 결론은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은 아니다. 나는 나를 설명함에 있어서 거짓말 없이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정말 쉽게 알았다. 지금까지의 내 경험들로 나를 설명하지만, 그 경험들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렇지만, 내 것이라고 말해야 했고 그건 일종의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럴듯한 말들을 해야 했다. 솔직하게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건 내 거짓말들이 일상의 소소한 성찰쯤으로 여겨질 타이밍에 적절히 내뱉은 말들이다. 지루해졌다. 나는 나를 해부해야 하는 의무감에 시달렸다. 열심히 고민했다. 나는 내가 낯설어졌고, 그래야 했고, 그게 차라리 좋았다. 그래, 얼마전까진 그랬다.

힘이 빠지고 지칠때가 될까. 요즘 나는 내가 더 이상 낯설어지지 않는다. 어느새 내 방 시계



언니들도 함께 가부장제 철폐



가부장제 철폐 1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페미라면



가부장제 철폐 2
중어는 필요없었지 땀땀땀



가부장제 철폐 3
가부장제 철폐해야조



언니들도 함께

가부장제 철폐



가부장제 철폐 4
제가 더 운동 열심히 할게요.



가부장제 철폐 5
서로 성찰하고 매일매일 반성하면



가부장제 철폐 6
해방사회 다가올거야~

초침은 다시 껍각 껍각 움직이고, 내 이빨은 희어졌다. 하지만 3년 일찍 태어난 친구한테는 오늘도 반말했다. 뭐 예외는 어디나 있다.

나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다. 나는 나와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차이 때문에 나는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꿈꿔왔던 '온전한 나'라는 건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 나는 끊임없이 다양한 나 사이에서 존재한다. 껍각 껍각 가는 초침을 믿는 나와 퍽퍽 가는 초침을 믿는 나와, 껍각 껍각은 내 경험이 아니라고 믿는 나와 퍽퍽도, 껍각 껍각도 다 맞다고 하는 나와, 세상에 맞는게 어딴냐고 생각하는 나, 이 모든 나 사이에 내가 있다. 이 차이들, 이 차이들이 없다면, 모든 게 하나라면, 자주 하는 말로 고민이 없다면, 나는 있을 수 없다. 나를 낯설게 하는 작업은 끊임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나를 낯설게 하는 공간. 내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그 틈들이 명백해 지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졸릴 때 자는 것만큼이나 너무 중요하다. ●

by 그릴듯하네, 나누기

평온해 보이는 지금의 사회를,
연세 학내를, 우리들의 공간을
균열내는 작업.

1인 화장실을 꿈꾸는 문화제

학생회관 부를샘 앞에서 1인 화장실 전시 중

28일 12시 중앙도서관 앞
퍼포먼스 <1인 화장실을 아시나요?>

그녀들이 외치는 구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파랑하양 현수막과 일쪽달록 기획단이 문화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백양관 강당
영화 <트렌스 가족>, <팬지와 담쟁이>

트렌스 가족: 트렌스젠더 커플이, 정체성, 사회, 소중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물어놓았다.
팬지와 담쟁이: 두 장에 여성의 일상생활,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췄다.

29일 오후 6시 30분 연희관 B012
강연 <화장실: 일상적인 정체성 검열, 승인, 규제 장치로서의 공간>

1인 화장실에 대한 담론을 가장 급진적으로 발언하는 트렌스젠더 인권활동에서 보는 화장실의 정치학
강연자: 트렌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활동가 루인

30일 오후 6시 30분 노천극장 제1연습실
워크숍 <모호한 나, 다른 몸 되기>

성별 이분법에 의해 '구성된' 나. 나의 욕망, 내가 움직이는 법, 내가 생각하는 것, 과연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걸까? 내 몸짓을 상대화하고, 타인의, 여성의, 다른 성정체성의, 다른 성별정체성의 몸이 되는 시간! 이상하다. 모호하다. 그런데 원래 그런가?

강사: 여성주의 춤테라피스트 이다
참석하실 분은 여일을 주세요! action-fem@yonsel.ac.kr로 불러우고 싶은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문화제 기간 내내 전시 <1인 화장실>

그래서 꿈꾸는 화장실이 도대체 뭔데? 실제로 만들어질 수는 있는건가?
학생회관 부를샘 앞에서 문화제 기간 내내 모델 화장실이 전시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1인 화장실을 체험하세요!

후기...

아 마감했다 싶었는데 아 후기를 안 썼다. 이번 마감에도 시계 구멍이 하나 준다. 이러다가 네이비 백과사전에 나오는 병리증 같 다 순회하겠다고 생각하며 끼룩끼룩 웃었다. 아... 끼룩끼룩 웃으면 보노가 무서워하는데...

- 자몽

나는 또 허탈하게 피감을 맞이하였으나 두 시간마다 글을 보려 내지는 않았으나 왜 글이 남을 최소 두 배로 긴 것일까에 대한 고민과 괴로움으로 주면을 내내 보냈으나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디(에헤라디아) 버는 오고 숨은 막아야겠고 날씨는 추운데 참물은 알아야겠고 같은 친데 어쩔듯 할 말은 해야겠고 할 일을 다 못해서 길어진 것일지도. 요즘 새벽은 좀 빨리 찾아오는 지라. 잠에 자고 일어나면 해가 주렁주렁하더라 역시 후기는 새벽에. 대들갈들은 왜 한 마르나하니 해마다 이번의 눈발이 추운 일결에 더해져서 그렇다 하는데 내가 왜 하얗게 타버리지 않느냐 하면 날마다 걸러먹고 새벽에야 겨우 드는 콩과 페페르의 갈고름 때문이 아닌가 하면서, 에헤라디아 밤 좀 멍자-!-

- 보노

마감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왜 우리는 여기에 이 인원이, 뭐 하려고 모였어야 할 다들 자물쇠에 낀 열쇠야. 하고 웃고 일어났다. 밤은 농담, 사실은 첫날.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이 인원이, 뭐 하려고 모였는지 되게 행복하다.

그런데, 되게 행복해도 힘들다. 천다.

- 상어

장신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새벽공식을 기준으로 '뒤진다'와 '강고'만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먹고 말치치으로 유머하지 않다는 그녀야 남은 자각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술에 3호를 빌 준어린 아티스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모두 죽어가고 있어요. 보노는 이미지를 남긴 후 3호만에 잠이 들었고, 유나는 또다시 네이비 기침에 빠졌고 있습니다. 자몽은 섬식장애와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나는 번갈아 8개만 사실에 기침 숨을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잊어는 반쯤 넋을 놓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혼자 스스로를 말리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무일 없어요.

- 나누기

